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어 시제와 상의 우리말 번역  
- 문제와 제안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 유 진

영어 시제와 상의 우리말 번역  
- 문제와 제안 -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정 유 진

# 인 준 서

정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 문 개 요

시제와 상은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므로 독립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의 맥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언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대학생 및 성인과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번역문을 분석하였다. 영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영어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옮겨 표현하는 활동은 많은 것을 시사해줄 수 있다. 이것은 영어 시제 및 상의 이해 정도와 한국어 체계 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시제와 관련된 연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그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제와 상의개념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시제 및 상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특히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았)은 그 기능이 다양하고 영어시제와의 비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별도로 더 깊이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 집단의 번역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번역자들의 번역결과를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문장별로 번역결과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영어 과거완료상과 가정법, 그리고 전체적인 시제의 유기성과 논리성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의 번역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영어시제 지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다. 고등학생 집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지문을 읽고 접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번역지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어의 단순 현재시제, 영어 복문의 시제관계, 시간의 접속사와 시제, 가정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된 주요 시제와 상의 요소들을 번역 분석 결과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통하여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번역자료 분석 결과, 하나의 영어시제 형태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시제표현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오류도 발견되고 있으나 영어 시제의 개념을 잘 인식하고 표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형식상으로는 옳지 않게 보이는 시제의 번역들도 한국어의 시제체계와 전반적인 번역문의 흐름상에서 보았을 때에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표현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시제를 지도할 때, 학생들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부 어려운 시제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한 편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지문을 스스로 이해하여 한국어로 옮겨 표현해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정해진 시제의 틀 속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그들의 표현을 개별적으로 가능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 차

## 논문개요

<b>제 1 장 서 론</b>	<b>1</b>
<b>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b>	<b>3</b>
2.1. 시제와 상의 개념	3
2.2. 영어의 시제와 상	4
2.3. 한국어의 시제와 상	8
2.4. 한국인의 영어시제 이해 관련 기존 연구들	11
2.5. 연구방법	12
<b>제 3 장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 분석</b>	<b>13</b>
3.1. 영어 완료상의 번역양상	13
3.2. 가정법에 쓰인 조동사의 번역양상	26
3.3.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전체적인 시제 유기성과 논리성	32
3.4.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기타 시제표현들	37
<b>제 4 장 고등학생 번역자료 분석</b>	<b>45</b>
4.1.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	45
4.2. 고등학생 지문(A) 번역자료 분석	46
4.2.1. 번역지문(A)의 특성	46
4.2.2. 첫 번째 문장 번역양상	46
4.2.3. 영어 단순현재시제의 번역양상	47
4.2.4. 영어 복문의 과거시제 번역양상	51
4.2.5. 시간의 접속사로 연결된 과거완료상 번역양상	58
4.3. 고등학생 지문(B) 번역자료 분석	62
4.3.1. 번역지문(B)의 특성	62
4.3.2. 완료상을 포함한 가정법 문장 번역양상	62
4.3.3. 대학생 및 성인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가정법 번역양상 비교	66
<b>제 5 장 결 론</b>	<b>68</b>
5.1. 영어 주요 시제 요소별 한국어 번역양상	68
5.2. 한국 교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시제 지도를 위한 제언	73
5.3. 맺음말	76

## 참고문헌

## Abstract

## 부 록 (번역지문 및 번역사례)

## 제 1 장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 학생 및 성인들에게 영어 번역지문을 제공하여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번역이라는 특성이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제2언어의 학습과정에서 목표어(target language)를 모국어로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중요 능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는 영어를 도구화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산출(모국어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영어로 이루어진 글의 정보를 학생들이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석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어학습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영어지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한국어의 지문으로 옮겨 표현하는 활동은 많은 것을 시사해줄 수 있다. 이것은 영어 시제와 상의 이해와 한국어 체계 내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직접 글로 써보는 것보다 이해한 바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어의 시제와 상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까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영어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인식’과 ‘이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학습자들에게 시제 및 상과 관련된 문장이나 문항을 제공하여 접하게 하는 것은 영어 시제와 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는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는 볼 수 없다. 시제와 상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개념이고 또 다른 언어적 요소들과 별

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의 맥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시제와 관련된 연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그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제와 상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 및 상의 체계 전반을 다루는 이론적인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들의 번역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함께 논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을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시제 및 상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체계를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았)’은 그 기능이 다양하고 영어시제와의 비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별도로 더 깊이 볼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 시제관련 연구의 흐름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습자들의 번역내용을 고등학생 부분과 대학생 및 성인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것이다. 각 지문 별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며,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교육적인 시사점을 함께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내용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고, 한국의 교실현장에서 영어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 2.1. 시제(tense) 및 상(aspect)의 개념

#### 2.1.1. 시제의 개념

시간을 언어로 표현할 때 시간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식 방법에 의해 표현된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인식되는 심리적 시간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다. 인간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주위의 변화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을 현재로 인식한다. 현재는 마치 점과 같아서 시간을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 폭을 가지는 심리적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재성, 2001)

사태의 시간 위치에 관한 인식이 그 말의 문법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시제이다. 시제는 화자가 자기의 전달 내용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만드는 문법적인 장치이다. 즉, 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 대해 가지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표시하는 범주이며, 발화시간과 그 문장 안에서 기술된 사건, 행위, 일의 상태와 시간과를 관계 지어주는 것이 근본 기능이다. (이재성, 2001)

시간(time)과 시제(tense)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시제표현은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를 기준으로 한다. 시제구분은 문법 형태의 대립 관계를 기준으로 말하며, 시간구분은 문맥적 환경이나 부사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서정수, 1996)

시제를 논할 때에는 기준시점과, 현재시, 발화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사태에 대한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제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점’과, 그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정해 줄 ‘또 다른 시간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또 다른 시간점’이 시간적 전후관계의 기

준이 되는 기준시점의 역할을 한다. 현재시와 발화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재시는 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며, 발화시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킨다. 이재성(2001)이 Jespersen(1924)의 이론을 설명한 것을 재인용하면, 현재시는 현순간(now)과 동일시된다. 이것은 시간선상의 한 점으로서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항상 움직인다. 현재시는 흔히 현시점을 포함한 하나의 시구간을 가리킨다. 'Now'는 마치 'here'가 이 지점, 이 지역, 이 도시를 가리킬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오늘, 금년, 영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 2.1.2. 상의 개념

상은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인식되는 모습을 문법 범주화한 것으로, 기술되는 사태의 전개 모습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시작상, 진행상, 완료상, 지속상 등의 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재성, 2001)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1985)에 의하면, 상은 대상 동사가 시간과 관련하여 간주되거나 경험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문법적인 범주를 지칭한다.

## 2.2. 영어의 시제와 상

### 2.2.1. 영어의 전반적인 시제체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가 아닌, '과거-비과거(nonpast)'로 본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표현을 제외한 일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볼 때 현재시제가 미래시간은 나타낼 수 있지만 과거시간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1) Today is Monday.

(2) \*Yesterday is Sunday.

(3) Tomorrow is Tuesday.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 177)

따라서 영어에서는 ‘미래시제’는 없고 ‘미래시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2.2.2 현재시제(the simple present tense)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

영어의 현재시제는 현재시간, 과거시간,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앞에서 현재시제는 과거시간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제체계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견해이며, 아래 표와 같이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그 용법이 일상적인 의미와 거리가 있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시제의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시 제	시 간	의 미
	present time	현재상태 또는 불변의 진리 (the state present) (4) The Nile is the longest river in Africa.
the simple present tense		습관적인 현재 (the habitual present) (5) We go to Brussels every year.
		현재 순간 (the instantaneous present) (6) Here comes the teacher!
	past time	역사적인 현재 (the historic present) : 과거의 사건이 마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함

		전달동사(communication verbs)와 함께 쓰여 전달내용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냄 (7) The ten o'clock news says that there's going to be a bad storm.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에 관해 언급할 때 (8) In The Brothers Karamazov, Dostoevsky draws his characters from sources deep in the Russian soil
	future time	미래의 사건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냄 (9) The plane leaves for Ankara at eight o'clock tonight.
		시간 또는 조건의 종속절에서 미래시간을 나타냄 (10) He'll do it if you pay him. (11)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hear from her.

(표 1) 영어의 단순현재시제가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들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 2.2.3. 과거시제가 나타내는 주요한 시간적 의미

영어의 과거시제 또한 현재시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의 차이가 있을 뿐 과거시간, 현재시간,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그 쓰임은 아래 표와 같다.

시 제	시 간	의 미
the past tense	past time	특정 사건이나 상태가 명백히 과거에 발생하여, 그 완결과 현재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12) I stayed in Africa for several months.
		화자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상태의 때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 (13) Freda started school in 1950

present time	의지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 화자의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냄 (14) Did you want to see me now?
future time	가정법 과거 용법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상태를 가정함 (15) If you really worked hard, you would soon get promoted.

(표 2) 영어의 과거시제가 나타내는 주요한 시간의 의미들

(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 2.2.4. 영어의 완료상 (The perfective aspect)

영어의 완료상은 크게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로 나뉜다. 이 중 현재완료의 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현재완료(The present perfective)

###### a.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

(16) That house has been empty for ages.

###### b.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

(17) Have you ever been to Florence?

###### c. 현재까지 계속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습관(즉, 계속 반복되는 사건)

(18) Mr Terry has sung in this choir ever since he was a boy.

##### (B) 과거완료(The past perfective)

과거완료는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내거나, 현재완료의 용법과 유사한 상적인 의미로 과거시간에서 쓰일 수 있다.

###### a. 과거보다 앞선 과거

b. 현재완료나 단순과거의 과거형 버전

(19) When we bought it, the house had been empty for several years.

2.3. 한국어의 시제와 상

2.3.1. 한국어의 전반적인 시제체계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었-”을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요소로 본다.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표(∅)의 시제를 비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시제를 나타낸다.

하지만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미래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어 이것을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 그 친구가 내년에 외국으로 떠나요. (서정수, 1996 : 122)

또한 한국어에서 미래시제는 문법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미래시간으로 간주되는 것(‘-겠-’, ‘-르 것-’, ‘-리라’ 등)은 미래 상황에서 쓰였을 때에만 그 기능을 하므로 일반적인 미래시제로 보기는 어렵다.

(21) 비가 오겠다. => 현재의 추정

(22) 내일 비가 오겠다. => 미래 시간 (서정수, 1996 : 123)

따라서 한국어의 시제 범주는 ‘현재’와 ‘과거’만 존재한다.

2.3.2. 한국어의 상

다른 대부분의 언어가 그러하듯 크게 완결상과 미완결상으로 나뉜다. 이

중 완결상을 예문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과거완결상

(23) 그 친구는 모자를 벗었다.

(24) 그 친구는 모자를 벗었었다. (서정수, 1996 : 130-131)

※ ‘-었었-’은 오직 완결상만을 나타내는 확실한 완결상임

(B) 현재완결상

(25) 아, 이 물고기가 살았구나

(26) 김 선수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서정수, 1996 : 133-134)

(C) 미래완결상

(27) 너 내일이면 죽었다. (서정수, 1996 : 135)

이상과 같이 한국어는 과거시제 ‘-었-’이 완결상(과거, 현재, 미래 모두 포함)을 나타낸다.

2.3.3. 한국어의 시제별 시제기능 및 상적 기능의 분류

이제까지 언급한 한국어의 시제와 상의 체계를 시제형태소별 가능한 시제와 상의 기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시 제	형 태	시제적 기능	상적 기능
현 재	∅	현재상태, 목전의 사건, 일련의 사건, 이행적 사건, 과거사태, 미래사건	현재진행상, 현재반복상, 현재습관상

과 거	‘-었-’	단순과거, 과거상태	완결상, 결과상태상, 과거진행상, 과거반복상, 과거습관상
과 거	‘-었었-’	과거사건, 불확정과거, 과거상태	과거완결
무 표	‘-고 있-’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 완결상태, 상태

(표 3) 한국어의 시제별 시제 및 상적 기능

(서정수, 1996 : 143)

#### 2.3.4. 한국어 시제형태소 “었(았)”

서정수(1996)는 『현대국어 문법론』에서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았)’을 기본적으로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문법요소라 규정하고 있다. “‘었’은 본디 과거 시제인데 그 의미가 환경에 따라 상적인 의미로 표출되기도 한다.” (서정수, 1996 : 29)

‘-었-’이 포함된 다른 형태로 ‘-었었-’이 있다. 이것은 가장 뚜렷한 완결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었-’은 모호성이 있어 과거표시 시간 부사어와 어울리지 않으면 과거시점에서의 완결 상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28) 나는 (\*지금) 이 소설을 읽었었다.

(29) 나는 (지금) 이 소설을 읽었다. (서정수, 1996 : 135-136)

김선호(1981)는 국어의 때매김을 ‘시제’보다는 ‘시상’이라고 판단하여 ‘았’으로 표현되는 때매김을 ‘완료상’이라 결론지었다. ‘았’의 의미를 종지형, 연결형어미, 관형형 등의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해본 결과와 한국어 언중들의 심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았’은

현재 또는 과거의 시간 부사와 함께 호응관계에 있는데, 만일 ‘왔’이 확고부동한 과거형태소라면 현재의 시간 부사와는 호응이 맞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논하였다.

(30) 나는 서울에서 어제 왔다.

(31) 나는 서울에서 방금 왔다. (김선호, 1981 : 25)

윤영로(198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의 시제를 한국어와 대응시켜 설명할 때, 영어의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한국어의 “왔, ∅, 겠”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왔’은 과거 표시의 기본적 기능과 ‘완결’의 부차적 기능을 가지는데, ‘완결’의 의미는 ‘완결지속상태’와 ‘완결 비지속’으로 분류된다. 전자에 속하는 경우 영어에서는 ‘현재완료’ 또는 ‘현재’로 표현되고(시제 불일치), 후자의 경우에는 영어의 문장 역시 ‘과거’로 표현된다(시제 일치).

#### 2.4. 한국인의 영어시제 이해 관련 기존 연구들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시제 이해와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영어시제 이해 및 사용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로서, “영어학습자의 시제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연세대학교, 김지영, 1994), “영어 시제의 이해와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이미영, 2000)등이 있다. 한국인들이 영어의 시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다음은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시제 표현 오류에 대한 연구이다. “영어 시제 학습에 나타난 오류 연구”(한남대학교, 이미희, 1994), “영어시제 표현의 오류에 대한 분석 연구”(홍익대학교, 유정석, 1999)가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 체계에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한국인의 영어시제 사용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실제 학생들의 오류를 수집하여 그 오류의 원인을 영어 시제체계의 습득과정에서 찾아보고, 또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모국어 전이현상 여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특정 시제표현이 포함된 문항들을 나열하여 각 시제형태 별 오류의 비율을 분석한 것인데,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오류를 수집하는 것은 동일하나 시제에 초점을 둔 문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지문을 번역한 내용에서 시제의 오류를 분석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영어시제 습득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김은미, 1994),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제체계 습득”(고려대학교, 심정하, 2004)이 있는데,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언어를 중간언어(interlanguage)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시제요소별 습득순서와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인의 영어시제 이해 관련 기타의 연구들로는 “영어시제의 효율적인 지도방안”(강원대학교, 이의성, 2000),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차이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았’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윤영로, 1986)등이 있었다.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차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나 그 차이점은 시제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습자들의 영어지문 번역자료를 중요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시제차이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2.5. 연구방법

고등학생 15명과 성인 15명에게 각각 2개의 번역지문을 제공하였다. 고등학생은 의정부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 14명(남자 9명, 여자 5명), 3학년 여학생 1명이 참여하였다. 성인집단은 나이 21세부터 33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 후반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자 3명, 여자 12명으로

분포되었고, 신분별로는 대학생 6명, 대학원생 4명, 직장인 5명이다. 15명중 7명이 영어전공자이며 나머지 8명은 비전공자이다.

지문은 각 집단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제 추정되는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을 선택하였다. 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부담을 줄 수 있고, 또한 시제의 번역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어휘적, 구문적인 난이도는 지나치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지문은 서사적인 (narrative)구조를 가진 것과 일반적인 서술 형태의 것,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서사적 구조의 글은 시제의 특성 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동작과 사건의 일련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총 30명의 연구대상자들은 영어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시간제한은 없고 사전사용도 허용하였다. 다만 완전한 한국어 표현으로 영어의 모든 내용을 옮기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으로 번역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번역이 시제번역의 양상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접할 때 시제를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 제 3 장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 분석

#### 3.1. 영어 완료상의 번역양상

대학생 및 성인의 번역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영어의 과거완료상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state leading up to the present)”라는 현재완료상의 의미와 대응하여 쓰인 표현을 살펴보겠다. 대학생 및 성인대상 번역지문 2개중 첫 번째인 (A)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겠다.<sup>1)</sup>

(32) I had wanted to make a beautiful man, but the face of the creature was horrible. (Shelley, 2000 : 10)

이 문장에서 “had wanted” 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번역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 유형	관련 시제 형태소	빈 도
‘(원)했다’형	‘-었-’	10/15
‘(원)했었다’형	‘-었었-’	4/15
‘(원)해왔었다’형		1/15

(표 4) 문장(32)의 시제<sup>2)</sup> 번역 양상

위 (표 4)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는 ‘원했다’형으로, 이것은 그 자체만 보아서는 ‘과거의 어느 한 때 원했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 단순히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단순과거로 분류되는 “-었-”이 들어간 단순한 과거의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had wanted”를 ‘원했다’라

1) 번역지문 및 번역사례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2) 편의상 앞으로 시제와 상을 통틀어서 시제로 언급하기도 할 것이다.

고 번역한 것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는 영어의 완료상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가령 “나는 사랑을 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원한 상태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또는 기간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 기준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원해왔는지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문장을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원했다.”라고 바꾼다면 비록 단순과거시제 ‘-었-’이 쓰였지만 ‘지금까지’라는 시간 부사어로 인해 그 원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원해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문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었-’도 다른 표현들과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면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료상으로서의 “-었-”의 기능은 서두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문장 (32)의 경우도 “나는 아름다운 몸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창조물의 얼굴은 끔찍했다.”라고 번역했을 때 비록 ‘원했다’라는 단순과거시제를 썼지만, ‘창조물의 얼굴은 끔찍했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면서 창조물의 얼굴을 확인한 최근까지는 계속 원해왔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했다”형의 번역은 영어의 기본적 의미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단순과거로서 영어의 완료상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표현으로 ‘원했었다’(4/15)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had wanted”가 완료상 중에서도 과거완료상이라는 것을 특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 과거완료상이 나타내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past-in-the-past)와 현재완료나 단순과거의 과거형 버전(anterior version)으로서의 역할이다.(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이러한 과거완료상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어와 우리말의 시제를 비교하고 있는 한 논문에서 국어의 시제 형태소 “-었었-”에 대한 여러 국어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재인

용해 살펴보겠다.(재인용, 정경숙, 1987) 이 논문에 의하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어의 과거완료상에 해당되는 국어의 시제 형태소로 “-었었-”을 들고 있다. 이것의 기능으로서 ‘꼭 오래전에 행했던 동작이나 작용’(이희승, 1965), ‘행동이 오래전에 끝난 것’(이승령, 1968), ‘지난적에 움직임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막 들어나 있었음을 보이는 때매김(최현배, 1937) 등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또한 다른 견해로서 남기심(1978)에 의하면, 과거의 어느 사건과 현재의 상황사이에 먼저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거나 말하는 이의 심리적인 간격의식이 먼저 사건과 현재의 상황사이를 일단 단절된 것으로 표현하려 할 때 쓰이는 것이라 하여 ‘단절상’이라 하였고, 김차균(1980)은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그 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다시 ‘원했었다’ 형으로 돌아가면, 이 형태는 ‘-었었-’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문장 (32)를 위 ‘-었었-’에 대한 이론들을 토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론 중 하나로 남기심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문장(32)에서 화자는 이제까지 멋진 몸을 만들기를 원해왔으나, 창조물의 끔찍한 얼굴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창조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전 사건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예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고, 화자의 심리가 예전과 현재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여겨짐으로써 전과 지금이 단절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이론에서 보면, 김차균의 이론은 문장(32)에서 화자가 창조물의 얼굴이 끔찍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보다 멋진 창조물을 원했던 시점이 더 앞선 시점임을 시사해 준다. 즉, ‘-었었-’이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문장(32)를 해석한 ‘원했었다’형은 단순과거시제인 ‘원했다’에 비해 영어의 완료상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시제형태소 ‘-었었-’은 완료상의 의미를 다른 시간관련 표현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표현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해왔었다’형은 기준시점보다 더 이전의 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원한다라는 화자의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그 표현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창조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고 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창조물의 얼굴이 끔찍하다고 알게 된 시점 바로 이전까지 화자는 계속 원해온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위 ‘원했었다’형에서 해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원하는 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되었음을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문장(32)의 “had wanted”라는 표현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자들은 대다수가 분명한 완료상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고 단순 과거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 완료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한국어 표현과 대응시키는지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장(32)에서 보여준 번역자들의 완료상 해석 양상이 다른 완료상 형태의 문장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의 완료상 해석이 어떠한 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다음은 번역지문(B)의 한 문장이다.

(33)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 she had worked for ten years in the fashion industry. (Piazza, 2002 : 52)

위 문장에서 “had worked”의 한국어 번역 내용들을 문장(32)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 유형	관련 시제 형태소	빈도수
‘(일)했다’ 형	‘-었-’	6/15

‘(일)했었다’형	‘-었었-’	4/15
‘(일)해왔었다’형		2/15
‘(일)해왔다’형		3/15

(표 5) 문장(33)의 시제 번역 양상

이 경우에도 문장(32)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과거형 ‘-었-’이 포함된 ‘했었다’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문장(32)이 10/15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하면 문장(33)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장(32)과 (33)을 비교하면 둘 다 같은 과거완료상이 쓰였으나, (32)는 시간을 나타내는 특정 어구가 쓰이지 않았고 (33)은 “for ten years”라는 시간 부사구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번역자들이 “for ten years”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음을 보고, 일한다는 동작이 10년 동안 계속되어왔음을 더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했었다’라는 단순과거형의 표현이 (32)에 비해서 줄고(10→6), 대신 ‘해왔었다’ 형이 약간 늘었으며(1→2) (32)에는 없었던 ‘해왔다’ 형이 3명 나타났다. 이것은 번역자들이 영어의 완료상이 갖는 기능을 인식해서 한국어의 완료상을 표현하는 형태로 적절하게 바꾼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영어의 완료상을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어가 명시적으로 함께 쓰였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단순히 특정 기간을 명시하는 시간의 부사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완료상 형태(had -ed) 만으로는 완료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놓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인식은 하였으나 문장(32)에 관해 논하였던 대로 과거형 ‘-었-’도 그 문맥에서는 완료의 의미를 담는 것이 가능하므로 굳이 한국어 과거완료상의 형태를 쓰지 않은 것인지를 논해 보아야 한다.

이를 논하기 위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위 말하는 동사의 상태적

의미(stative senses)와 동작적 의미(dynamic senses)의 차이이다. 문장(32)의 "had wanted"는 전자로 볼 수 있고, 문장(33)의 "had worked"는 후자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기간 동안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지속될 때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동작이 지속되는 것이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속'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나, 동작은 계속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이 문장(32)에서는 한국어의 완료상을 확실히 표현하는 형태를 쓰지 않고 문장(33)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쓴 것은 문장(32)가 상태동사이고 문장(33)은 동작동사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상태동사는 특정기간을 명시하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들이 시간의 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동사의 과거완료상 형태(had -ed)만으로 완료상을 인식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문장(32)에서 과거형 '-었-'을 쓴 번역자들이 완료상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고 '-었-'의 기본적인 기능 그대로 단순과거시제만을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영어의 완료상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동작의 의미를 갖거나 특정 시간의 부사어를 동반할 때 등, 그 완료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날 때는 한국어에서도 확실히 완료상을 명시하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장(33)의 번역문들에서 '해왔었다'형(2/15)과 '해왔다'형(3/15)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특정 행위가 과거 이전부터 기준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인 '-었-'의 유무가 둘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문장(32)에서 '해왔었다'는 과거완료상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는데, 그렇다면 '해왔다'는 위 형태에서 과거시제 형태소 '-었-'이 빠진 현재완료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보자.

(34)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패션 산업계에서 십년동안 일해왔었다.

(35) 그녀는 지금까지 패션 산업계에서 십년 동안 일해왔다.

이 두 문장은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과거부터 기준시점까지 이어지는 상태인 과거완료상과, 과거부터 기준시점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재완료상의 국어적 구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문장(32)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현재 완료상적인 표현을 왜 같은 과거완료형인 문장(33)에서 보여준 것일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번역지문 (A)와 (B)는 모두 기준시점이 ‘과거’인 글이다. 그리고 지문(A)에서 “had wanted”와 지문(B)에서의 “had worked” 모두 ‘had -ed’라는 과거완료상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지문(B)의 문장(33)을 국어의 현재완료상으로 번역한 3명의 번역자는 그 문장의 기준시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시점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면, 지문의 내용을 틀리게 해석하게 된다.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장(33)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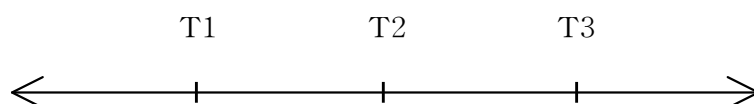
(36) Fine marks crisscrossed the pottery. Soffer examined those marks.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 she had worked for ten years in the fashion industry. She recognized the marks as evidence of woven threads. (Piazza, 2002 : 52)

이 지문을 해석하면 고고학자인 Soffer는 도자기의 문양들을 연구하였는데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패션 업계에서 10년 동안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 경험을 토대로 문양들이 짜여진

실의 증거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즉, Soffer가 패션업계에 종사했던 것은 도자기 문양을 연구한 시점보다 일정기간 더 앞서서 완료된 사건이다.

T1 : 패션업계에서 일하기 시작      T2 : 고고학자로서의 커리어 시작

T3 : 고고학자로서 선사시대 유물인 도자기를 연구함



(표 6) 문장(36)에 나타난 사건들의 시간관계

그러므로 (36)의 “had worked” 부분을 현재완료로 인식하게 되면 Soffer가 기준시점인 T3까지 계속 패션 업계에 종사해오고 있다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번역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영어의 시제를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러할 수 있겠으나(실제로 오류를 보인 3인 중 1명은 전체적으로 시제를 비일관적으로 사용하는 혼돈을 보여주었음) 그 보다는 ‘기준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장(33)에서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라는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표 6)에서 보여지는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해도 ‘일해왔었다’라는 분명한 과거완료상대신 ‘일해왔다’라는 현재완료상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 ‘기준시점’이라는 개념을 더욱 분명히 이해시켜, 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까지 영어의 완료상이 포함된 문장 두 가지를 분석해보았다. 하나는 특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동사로서의 완료상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특정기간을 명시한 시간의 부사구가 동반된 동작동사로 이루어진 완료상이었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번역 양상의 차이점은 시간 표현의 부사어 존재 여부와 상태동사/동작동사의 개념 구분으로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하여 과거완료상이 포함된 문장을 하나 더 분석해보겠다.

(37) For a year I had worked to make this creature,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 (Shelley, 2000 : 10)

시제 유형	관련 시제 형태소 및 내용	빈도수
‘했다’형	‘-었-’	8/15
‘했었다’형	‘-었었-’	1/15
‘해왔다’형		2/15
‘해왔었다’형		1/15
예외적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 쓰여졌다.</li> <li>· 1년 정도가 걸렸지만</li> <li>· 1년 동안 만들어졌다.</li> </ul>	3/15

(표 7) 문장(37)의 시제 번역 양상

문장 (37)의 번역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가 명시된 동작동사의 과거완료상인 문장 (33)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장 (37)에서는 “for a year”라는 시간의 표현이 문장에 좀 더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 (표 7)에서 예외적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 표현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그 기간이 ‘had worked’라는 동작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for a year”라는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에 나옴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동사구 다음에 위치하는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로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그 기간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그 기간 내에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년’이

라는 기간을 강조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발견되었다.

“나는 일년 동안이나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했으나...”

“1년여 동안 나는 이 작품을 만드는데 열중해왔지만...”

“1년 동안 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드느라 고생했지만,”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에 전념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일년 동안’ 대신 ‘일년 동안이나’라는 표현을 씬으로써 그 기간 자체를 강조하였으며, 나머지 문장들은 “had worked”를 단순히 ‘일한다’가 아니라 ‘매우 힘써 일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기간이 화자에게 있어 매우 긴 기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제의 표현은 동사 자체의 시제 형태소 뿐만 아니라 시간 부사어의 유무와 그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37)과 관련해 눈여겨볼 것은 ‘했다’라는 형태가 같은 시간의 부사구가 명시되고 동작동사의 과거완료형이 포함된 문장 (33)에 비하여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8/12. ※15개 중 3개는 ‘had worked’를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예외적인 표현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장(37)을 살펴보면 중 완료상 문장 뒤에 이어지는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문장은 ‘now’라는 보통 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사와 명백한 과거시제가 함께 쓰인 문장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번역을 할 때 현재시제로 해야 할 지 과거시제로 해야 할 지 혼란을 줄 수 있다. ‘now’를 단순히 ‘지금’으로서 현재시제와만 함께 쓰일 수 있고 과거시제와는 함께 쓰일 수 없는 부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문장을 비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것은 “현재시와 발화시가 동일한가?”라는 물음과 연관된다. 이에 대한 답은 학자들마다 다르나 예스페르슨(Jespersen, 1924. 재인용. 이재성, 2001)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에 따르면 현재시와 발화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now’와 과거시제 형태가 함께 쓰인 것도 충분히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답하였는지 살펴보자. 총 15명 중 9명이 ‘looked’를 현재시제로 번역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시제로 번역한 9명도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 형태에 맞게 과거시제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즉, “but now it looked...” 부분만 현재부사 now로 인하여 현재시제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 (37)에서 ‘했다’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했다’형으로 답한 8명 중 5명이 “now it looked...” 부분을 현재형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과거시제로 해석한 6명 중에는 문장(37)을 ‘해왔다’형으로 해석한 경우가 1명, ‘해왔었다’가 1명, 그리고 ‘했었다’가 1명 포함되어 있었다. 즉, ‘했다’형을 제외한 형태(‘해왔다’, ‘해왔었다’, ‘했었다’)를 보인 4명 중 3명이 “now it looked...”를 과거시제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문장(37)의 과거완료상 “had worked”를 번역함에 있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now it looked...”는 시제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now’라는 현재형 부사 때문에 “now it looked...”는 현재시제로 많이 번역되었고, 따라서 그 앞의 문장은 현재보다 앞선 과거시제로 해석되었다. 즉, “had worked”를 과거완료가 아닌 과거시제로 해석한 것이다. ‘했다’형이 단순 과거시제 뿐만 아니라 완료상(현재완료, 과거완료 모두 포함)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의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바 있지만, 그렇다 해도 문장(37)이 문장(33)에 비하여 ‘했다’형이 늘고 그 외의 표현들이 줄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적어도 완료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들이 줄

었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료상을 명시해주는 표현들은 ‘했었다’, ‘해왔다’, ‘해왔었다’이다. ‘했었다’는 국어 시제 형태소 ‘-었었-’을 포함한 것으로, 영어의 과거완료상과 대응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해왔다’와 ‘해왔었다’형은 문장(33)에서 해당 동작이 기준시점까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명시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문장(37)에서 줄어든 것은 문장(37)은 그 의미상 문장(33)에 비하여 동작의 ‘계속’보다는 그 ‘완결성’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완료상의 형태가 포함된 3개의 영어문장을 선택하여 그 번역양상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영어 완료상의 한국어 번역양상에 대한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상문장	I <u>had wanted</u> to make a beautiful man, but the face of the creature was horrible.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 she <u>had worked</u> ten years in the fashion industry.	For a year I <u>had worked</u> to make this creature,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
시간의 부사구 명시유무	×	○	○
동사의 종류	상태동사	동작동사	동작동사
특이사항			후속문장의 영향 존재
번역양상	한국어 단순과거 시제 형태소 ‘-었-’이 들어간 ‘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남.	‘했다’형이 줄고, ‘해왔다’, ‘해왔었다’형이 늘어남.	기간을 중심으로 한 표현 양상이 새로이 나타났고, ‘해왔다’, ‘해왔었다’ 형이 다시 줄었음.

<b>번역양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b>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상대동사의 과거완료형임.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 있고 동작동사의 과거완료형이며, 동작의 완료성 보다는 계속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시간의 부사구 표현이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문두로 나와 강조되었고, 대상 문장 뒤에 후속 문장이 현재형 부사과 과거시제의 결합형태를 보임.
--------------------------------	-------------------------------------	---	---

(표 8) 각 영어 과거완료상 형태의 한국어 번역 양상 비교

이와 같이 3개의 문장을 번역지문에서 추출해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룰 수 있다.

첫째로, 같은 영어의 시제 형태라 하더라도 그 한국어 번역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의 부사구 존재 여부나 그 문장의 앞·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시제의 구분이 형태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어의 단순과거시제와 과거완료상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또 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상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음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번역자들의 번역양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영어시제의 바람직한 한국어 번역을 위해서는 영어의 시제형태 뿐만 아니라 부사표현, 선·후행 문장,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번역자들이 3개의 문장에 대해 어떠한 일관성을 갖고 답하였는지 번역자 별로 번역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b>문장(32)</b>	<b>문장(33)</b>	<b>문장(37)</b>
1	했었다	해왔었다	했다
2	했다	해왔다	※1년이 쓰여졌다
3	했다	해왔다	※1년정도가 걸렸지만

4	했었다	했었다	※1년동안 만들어졌다
5	했다	했다	했다
6	했었다	해왔었다	해왔다
7	했다	했다	했다
8	했다	했었다	했었다
9	해왔었다	했었다	해왔었다
10	했다	했다	했다
11	했다	했다	했다
12	했었다	해왔다	해왔다
13	했다	했다	했다
14	했다	했었다	했다
15	했다	했다	했다

※ 기간을 중심으로 한 예외적인 표현들

(표 9) 각 번역자 별 영어 과거완료상의 번역 양상

위 표의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3문장 모두 일관된 번역 양상을 보인 번역자가 6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했다’형으로 답하였다. 3문장 중 2문장에 동일한 번역양상을 보인 경우는 6명이 있었고, 나머지 3명은 3문장에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 3문장에 모두 같이 답한 6명의 번역자가 모두 ‘했다’형으로 답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했다’형에 포함된 시제 형태소 ‘-었-’이 그 기능의 범위가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 번역자들이 국어를 구사함에 있어 비슷한 표현이라도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표현은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유형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라 해도 그것이 ‘-었-’이라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형태로 국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영어의 완료상을 번역함에 있어 같은 영어 형태라도 다양한 한국어를 적용시킨다는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3.2. 가정법에 쓰인 조동사의 번역양상

영어에서 가정법은 직접적으로 시제와 관련되는 범주는 아니나 영어의 시

제 번역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사실’이 아닌, 사실로부터 꽤 동떨어진 ‘가정’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동사의 시제 형태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인들이 영어의 가정법을 번역할 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 가정법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번역지문 (B)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겠다.

(38) If you traveled back in time to the Ice Age, you would<sub>1</sub> want to take Olga Soffer with you. She could<sub>2</sub> tell you what to wear. You'd<sub>3</sub> wear furs and animal skins, stitched together with sinew, right? Not necessarily Soffer would<sub>4</sub> say. (Piazza, 2002 : 52)

위 문장들이 의미하는 ‘시간’은 현재이다. 그러나 그 시제의 형태는 과거이다. 번역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5명의 번역자들은 단 1명이 “You'd wear~”라는 표현에서 ‘입었을 것이다’라고 과거시제를 쓴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문장의 의미에 맞게 시간을 현재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영어의 가정법에서 과거시제가 현재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가정법이 포함된 문장들 그 이후의 시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이후의 문장들은 가정법이 아닌 문장들로 주로 과거시제이면서 시간 또한 과거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 결과, 15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번역자가 가정법 문장 이후의 문장부터는 과거시제를 과거시간으로 맞게 잘 표현하였다. 1명의 번역자는 그 이후의 문장에서 가정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시제를 계속 현재시간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다시 과거시간으로 바뀌 번역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서 가정법의 표현에서 번역의 오류를 보였던 번역자는 가정법을 포함한 이후의 문장에서는 오류 없이 시간의 표현을 적절하게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번역자들은 영어의 가정법의 체계가 한국어와 달라서 시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여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정법의 본래 의미는 현재/과거의 시간상의 논리를 떠나서 그 가정의 의미(hypothetical meaning)를 잘 전달했느냐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즉, 능력(ability), 가능성(possibility), 허락(permission), 추측(prediction), 의지(volition) 등의 법(mood)을 잘 이해하고 번역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이것은 조동사(modal verbs)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달려 있다. 법은 시제와 시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 의미상 시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조동사는 그 의미상 한국어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번역자들의 다양한 번역양상을 모두 비교해 보겠다.

	<b>would<sub>1</sub> want</b>	<b>could<sub>2</sub> tell</b>	<b>You'd<sub>3</sub> wear</b>	<b>would<sub>4</sub> say</b>
1	원할 것이다	줄 테니깐	입고 있을테지요	말할겁니다
2	원할 것이다	얘기해 줄 것이다	입어 몸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얘기할 것이다
3	바랄 것이다	말해 줄 수 있다	입었을 것이다	말에 따르자면
4	(만나)려 할 것이다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입고 싶어 할 것 이다	(무응답)
5	원할지도 모릅니 다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입을 껍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6	싶어 할텐데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입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 는) 않을 겁니다.

7	원할 것이다	알려줄 수 있다	입고 있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8	원할지도 모르겠다	말해줄 수 있을테니까	입을지도 모른다	말할지도 모른다
9	싫어 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다	입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10	싫어 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을테니까	입을 것이다	말할 것이다
11	(데려가는게) 좋을 것입니다.	말해줄 테니까요	입을 테지요	말할 것입니다
12	원할 것이다	말해줄 수 있다	입어야 한다	말할 것이다
13	바랄거다	말해줄 수 있다	입어야 한다	말할거다
14	원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입어야 할 것이다	말할지도 모른다
15	싫을 것입니다.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을 겁니다	말할겁니다

(표 10) 영어조동사의 한국어 번역양상

위 번역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어미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련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모두 가정의 의미로 쓰였다는 전제하에서 각각의 고유한 의미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Would<sub>1</sub>의 해석에서는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났다(12/15). 이 표현은 한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will/would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predic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어(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한국어의 해석과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Would의 나머지 해석들에서는 ‘-할지도 모르겠다’형이 2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할 것이다’에 비해 그 추측의 강도가 다소 약하다. 영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표현을 ‘might’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Epistemic possibility’라고 규정되어 ‘주어진 명제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라고 풀이되고 있다.(Quirk, Greenbaum, Leech, Svartvik, 1985) Would<sub>1</sub>의 남은 한 가지 해석인 ‘-할 텐데’는 추정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한 유감, 아쉬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가정법이 현실과 매우 다른 상황을 가정, 상상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미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화자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인데 위의 would<sub>1</sub> 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추측일 뿐 유감의 의미는 거의 없다. 이상의 would<sub>1</sub> 에 대한 번역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어의 would의 의미와 상당히 일치하여 번역이 되었으나 might의 의미도 조금 엇보이고 유감을 나타내는 의미도 나타났다.

다른 ‘would’가 쓰인 부분을 would<sub>1</sub> 과 비교해보면, (You)’d<sub>3</sub> 에서는 ‘-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형태도 꽤 발견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할 것이다’와 결합하여 ‘-해야 할 것이다’라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번역자들은 왜 (You)’d<sub>3</sub>의 해석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의무의 의미를 나타낸 것일까? 또 다른 would<sub>4</sub>의 표현에서도 첫 번째 would<sub>1</sub>와 마찬가지로 당위·의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Would<sub>4</sub>는 전반적으로 would<sub>1</sub>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You)’d<sub>3</sub>의 새로운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 그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우선 걸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You)’d<sub>3</sub>는 would가 주어와 연결되어 축약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는 그 형태만 가지고는 그것의 원형이 ‘would’인지 또는 ‘had’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ould, should는 “’d”로 축약하여 쓰지 않는다.(Greenbaum, Quirk, 1990) ‘Had’는 ‘You’d better keep quiet about it.’에서와 같은 형태로 축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번역자들이 (You)’d<sub>3</sub>를 ‘You had’로 보았다 하더라도 당위·의무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힘들다. ‘have to infinitive’가 ‘의무’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것으로 번역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명한 것은 번역자들이 영어 조동사의 축약형을 만났을 때 그것의 본래 형태와 의미를 파악해내는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동사의 본래 형태 뿐 만 아니라 축약형(contracting forms)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could<sub>2</sub>의 번역은 대다수의 번역자(11/15)가 ‘-할 수 있다’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could<sub>2</sub>의 근본적인 기능은 가정의 의미이므로 ‘-할 것이다’라는 추정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위의 11명중 6명이 해당되었다. 11명중 5명은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형태를 사용하여 추정의 의미 없이 단정적인 의미를 사용하였다. 한편 ‘가능성’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번역자는 모두 ‘-할 것이다’라는 추정의 의미만을 나타내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번역자들은 could<sub>2</sub>를 가능성과 추정 그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로 번역하였는데 둘 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의 의미는 could<sub>2</sub>가 포함된 문장의 문맥상 그리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법으로서 ‘추정’의 의미가 누락된 것은 더욱 정확하지 못한 번역이다.

이제까지 한국인들의 영어 가정법 번역에서 조동사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영어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해서 한국어로 옮기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3.3.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전체적인 시제 유기성과 논리성

시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특정 부분의 시제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의 전체적인 시간의 표현 양상과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떠한 글이 전체적으로 과거시제로 묘사되고 있는지, 또는 현재시제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중심이 되는 기준시점으로 인지하는 능력이다. 기준시점을 바르게 인식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시간의 전후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글의 전체적인 시제(기준시)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글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 사건 또는 진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현재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화

자가 그 글을 과거시제 또는 현재시제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간 표현이 글에 어떠한 효과와 느낌을 주는지 파악함으로써 그 글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제도 하나의 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이며, 하나하나의 시제·시간 표현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메시지의 전달에 기여해야하는 것이다.

두 개의 번역지문 (A)와 (B)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A)는 특정 소설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독자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시작부터 과거시제로 시작하여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과거완료 등의 시제가 관련된 특정 의미를 표현해주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한 편 지문 (B)는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효과적인 설명을 위하여 독자들에게 특정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법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독자에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사실들을 과거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지문 (B) 또한 끝까지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같은 과거시제라 하더라도 결론 부분에서는 현재와 꽤 가까운 과거, 내용상 현재와 가깝게 연결되는 과거 시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과거의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최근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번역지문의 시제 및 시간 표현의 패턴을 번역자들이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겠다. 전체적으로 번역내용이 글의 내용과 논리적 흐름에 맞게 시간 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용에 맞지 않게 잘못된 시간의 표현이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겠다. 번역자 15명 중 번역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있어 시제·시간적인 오류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번역자는 모두 4명이었다. 이들은 번역 내용의 전체

적인 흐름과 문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적절한 시간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간의 표현은 자연스러웠으나 특정부분에서 약간의 어긋난 시간표현을 보여준 번역자들은 모두 7명이었으며(한 지문 당 2개 이하, 두 지문을 합하여 3개 이하), 나머지 4명은 다소 많은 수의 시간적 오류를 보여주었다.

그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문(A)에서는 앞서 과거완료상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음 부분에서의 내용이다.

(39) My creature was two and a half meters tall. For a year I had worked to make this creature,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 I almost decided to destroy it. But I could not. (Shelley, 2000 : 10)

이미 분석했듯이 now라는 현재형 부사 때문에 동사의 과거시제를 현재시간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한국어 번역으로 바꾸어 그 논리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39-1) 나의 창조물은 2미터 반만큼 키가 컸다.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것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거의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문단의 상황은 화자가 자신이 만들었던 창조물의 모습과 자신이 그것에게 가졌던 감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1년 동안이나 공들여 만든 창조물이 외관상 너무 끔찍하므로 파괴하여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전부터 1년동안 일해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

해왔었다'라는 과거완료상 표현을 썼고, 발화시가 현재시와 같지 않으므로 'now'에 해당하는 표현을 '지금'이 아니라 '이제 와서'라고 문맥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런데 (39-1)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면 그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39-2) 나의 창조물은 2미터 반만큼 키가 컸다. 1년 동안 나는 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일해왔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워 보인다. 나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거의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번역에서는 창조물이 끔찍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조물이 끔찍하다고 묘사하는 시점은 발화시와 일치되고 있으며 위 문맥상의 현재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시간적으로 그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39-1)의 해석에서는 발화시점에서 창조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39-2)에서는 창조물을 발화시점에서 묘사함으로써 창조물이 적어도 발화시점과 동일한 '지금'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제는 글의 내용(정보)과 논리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그 어느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오류가 생기면 글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번역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 정확하고도 유기적인 시간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번역지문 (B)에서도 구체적인 오류를 하나 살펴보겠다.

(40) Women would have woven that clothing. Until recently, anthropologists focused on the man in prehistoric societies. Their

stone tools sometimes survived the passage of time. The plant fibers that women wove into clothing did not survive. Soffer's research forced anthropologists to rethink women's contributions to their prehistoric society. (Piazza, 2002 : 52)

위 지문에서는 선사시대라는 꽤 아득하고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여자들이 옷을 실로 짰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until recently"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통해서 최근까지의 어떠한 경향을 설명하고, 그리고 근래에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문단(40) 부분은 매우 긴 시간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선사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에서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과거완료상을 사용한 것 말고는 모두 일관되게 '과거시제' 형태로 진술되고 있다.

영어의 시제 형태와 다른 국어의 시제 형태를 대응시킨 경우가 (40)의 마지막 문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15명 중 5명이 이 문장을 한국어의 과거시제가 아닌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단(40)에서 위 문장이 가장 현재에 근접한 시간대와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긴 시간대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간 영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현재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문장을 과거시제로 번역했을 때와 현재시제로 번역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겠다.

(40-1) ...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남자들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Soffer의 연구는 인류학자들이 선사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를 재고하도록 하였다.

(40-2) ...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남자들에 관해서 초

점을 맞추었다... Soffer의 연구는 인류학자들이 선사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를 재고하게 한다.

시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해석은 영어의 시제를 그대로 한국어에 대응시킨 (40-1)의 해석이다. Soffer의 연구가 행해진 얼마 전의 과거부터 그 연구는 인류학자들의 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0-2)의 해석도 그렇게 어색하거나 논리적으로 분명히 틀렸다고 할 만한 점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관되어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전후관계와 논리성 여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Soffer의 연구가 인류학자들의 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의 서술시점인 ‘지금’에도 유효한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문단 (39)에서는 한 문장의 시제 번역 오류가 글 전체의 논리성에 영향을 주는 예를 보았었다. 문단 (40)의 번역에서 나타난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 비일치성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글의 논리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제번역의 오류로 분류하기 보다는 그 시제 비일치성이 가져오는 의미의 미묘한 차이에 관해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3.4. 대학생 및 성인 번역자료의 기타 시제표현들

이제까지 시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영어시제의 한국어 번역양상에 대해 논해보았다. 대학생 및 성인들의 영어시제 번역 양상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시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영어문장들을 번역지문에서 선택하여 그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1. (41) Two days later I saw dark clouds in the sky, and I knew that a storm was coming. (Shelley, 2000 : 10)

번역자	번역 내용
1	그리고 나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았다.
2	나는 폭풍이 곧 온다는 것을 알았다.
3	폭풍우가 몰아침을 알았다.
4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곧 태풍이 올꺼라는 것을 알았다.
6	나는 폭풍이 곧 몰아 칠거라는 것을 알았다.
7	나는 곧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았다.
8	폭풍이 오는 것을 알았다.
9	나는 폭풍이 다가오는 증임을 알았다.
10	곧 폭풍이 닥칠 것을 알았다.
11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	폭풍이 올거라는 것을 알았다.
13	그리고 나는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4	폭풍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
15	폭풍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 11) 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1

문장 (41)은 과거진행(the past progressive)이 포함된 문장이다. 여기에서 진행상( the progressive aspect)은 ‘과거 상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사건’(events anticipated in the past (future in the past))을 나타낸다. (Sidney Greenbaum, Randolph Quirk, 1990) 번역자들은 이러한 의미에 맞게 모두 적절히 번역을 하였다. 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한국어의 표현은 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각 표현들의 미묘한 차이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근접한 미래로 예상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올거라는 것을’, ‘곧 온다는 것을’, ‘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로 이어지는 표현들이다.

2. (42) I was filled with fear at what I had done. (Shelley, 2000 : 10)

번역자	번역 내용
1	나는 내가 했던 짓에 두려움이 가득찼다.
2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공포로 가득차 있었다.
3	나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4	그리고는 내가 한일에 대해 공포로 가득찼다.
5	나는 내가 한 짓에 대해 공포로 가득차 있었다.
6	내가 저질렀었던 일에 대한 공포로 나의 온몸은 전율하고 있었다.
7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너무나 두려움에 찼다.
8	나는 내가 한 짓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찼다.
9	나는 내가 저지른 일로 공포감에 가득차 있었다.
10	나는 내가 한일에 대해 공포에 질렸다.
11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12	나는 내가 한 일로 인해 공포로 가득찼다.
13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14	나는 내가 한 짓에 대한 공포로 휩싸였다.
15	나는 내가 한 일에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표 12) 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2

번역자들은 “was”라는 과거시제와 “had done”이라는 과거완료 시제의 시간적 관계를 잘 이해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즉, 화자가 일을 저지른 시점이 두려움에 가득찼던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문장(42)에서 과거완료상의 한국어 표현은 ‘했던’, ‘했었

던’, ‘한’ 등으로 나타났다. ‘했던’과 ‘했었던’의 비교에서 앞서 과거완료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던 ‘-었-’과 ‘-었었-’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다 문맥상으로 적절하게 과거완료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한 일’이라고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것보다 ‘했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어 상에서 좀 더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3. (43) ... they discovered evidence that well-dressed prehistoric people might have worn clothes much like our fine cottons and lines.

(Piazza, 2002 : 52)

번역자	번역 내용
1	...입었다는 것을...
2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3	...잘 갖춰 입었음을...
4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5	...입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들을...
6	...입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7	...잘 갖춰입은 선사시대 인간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8	...입혔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를...
9	...입었을지 모른다는 증거를...
10	...입었다는 증거를...
11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12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13	3)※ 그들은 잘 차려입은 고대의 사람들의 옷에서 우리의 순면과 직물에 비슷한 증거물을 발견하였다.
14	...입었다는 증거를...
15	...입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표 13) 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3

3) ‘※’ 표시는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번역을 의미한다.

문장(43)에서 ‘might have worn’은 조동사의 과거형과 완료상의 결합이라는 복잡한 형태가 암시하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May(might)가 ‘주어진 명제가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원시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추측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추측의 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입었었을런지도 모른다는...’ 과 같이 약한 추측에서 ‘입었을 것이라는...’과 같은 다소 강한 추측의 표현도 나타났다. 추측의 강도가 가장 센 표현으로서 단정의 표현인 단순과거적 해석 ‘... 입었다는 것을...’도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의 다양성은 한국인들이 영어의 may(might)가 나타내는 사실 가능성 추측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정도는 단정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국인들이 그 미묘한 정도의 차이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4. (44) Soffer and her colleague decided that the statues had once been dressed in woven clothing. (Piazza, 2002 : 52)

번역자	번역 내용
1	※ 조상들이 한번쯤은 짜여진 의류를 입었을 거라고...
2	※ 조상들이 옷감을 어떻게 짜서 입었는지...
3	이전에 그 조각상은 실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4	※ 도자기가 짜인 천으로 쌓여져 있었다고...
5	도자기상들이 실로 짜여진 의복들이 입혀져왔다는...
6	그 도자상이 한 때는 예전에 직물로 되어진 천을 입었다고...
7	그 도자기의 인물이 실로 짠 옷을 입었다고...
8	그 동상들이 한 때 그 짜낸 옷을 입고 있었다고...

9	그 상이 한 때는 실로 짜인 옷을 입었었다고...
10	조각상이 예전에는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는...
11	도자기 상에 예전에는 옷이 입혀져 있었다고...
12	동상들이 짜여진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13	그 조각상은 옷이 입혀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으로...
14	직물로 짜여진 옷을 과거에 입었었다고...
15	그 동상이 한 때는 짜여진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표 14) 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4

이 지문의 특징은 과거완료형과 수동태(passive)가 혼합된 것이며, ‘once’라는 부사를 통해 ‘한 때 그러한 적이 있었다’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indefinite event in a period leading up to present)에 대응하는 과거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완료상이 포함된 문장이므로 역시 ‘입었다’와 ‘입었었다’로 분류되는 ‘-었-’과 ‘-었었-’의 표현이 둘 다 나타났다. 그런데 ‘입었을거라고’와 같이 추측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 3개가 나타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본래 영어문장의 의미는 추측의 의미가 없는 단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once’(한 때)라는 표현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해당사건의 ‘기간’이 불명확한 것인데 그 내용까지도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했던 문장(43)에서와 같이 과거완료상이 조동사와 함께 쓰임으로써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도 그러한 용법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 정확한 이유를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러한 해석이 나왔는지를 알아보고, 바른 해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45) Through the ages, the clothing had disintegrated, leading the marks as the only evidence of its existence. (Piazza, 2002 : 52)

번역자	번역 내용
1	비록 이전시대들의 의류는 분해되지만, 이것의 존재의 증명 으로 무늬는 남겨진다.
2	시대가 지나면서 옷들은 분해되었고, 남은 물품들의 존재가 겨우 증거로 남는다.
3	그 시대를 통해서, ‘옷’이라는 것의 의미가 정의되어졌고, 그 징표가 남겨져 그렇게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4	시대를 거쳐 옷은 사라지고 그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그 런 마크를 남겼다.
5	수세기를 걸쳐 의복은 존재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그러한 흔적들을 남겨두고 분화되었습니다.
6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옷이 찢겨지고 파손되었긴 하였지 만, 그러나 직물의 존재의 증거로 그 표시들을 남겨 놓을 것 이다.
7	여러 시대를 거쳐 그 옷은 남아서 분해되었고, 문양만이 그 것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되었다.
8	몇 시대에 걸쳐서 그 옷은 붕괴되었고, 오직 그 존재만을 확 인시켜주는 증거로써 마크만 남겼다.
9	그 시대에 의복은 그것의 유일한 증거로 표시를 남기면서 붕괴되었다.
10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풍화되었고, 존재의 유일한 증거로서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11	시간이 흘러 옷은 분해되어 버렸지만, 흔적은 그것이 존재했 다는 증거를 남겼다.
12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분해되고 그것이 존재 증거로서 표식을 남겼다.
13	※ 시대를 통해서 그것은 존재의 유일한 증거인 표시가 없 어진 채 그 옷은 ... 되었다.
14	시간이 흐르면서 옷의/천의 분해가 이루어져 현재의 그런 십 자무늬만을 남긴 것이다.

15	그 시대 동안에 옷은 파헤쳐졌고 그 점들을 존재의 유일한 증거로 남겼습니다.
----	--

(표 15) 기타 시제표현 번역양상 5

위 영어문장은 "leaving"이라는 분사(participles)를 포함하여, 그 해석이 다른 동사의 시제와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닌 문장이다. 번역자들은 대부분 문장(45)의 시간적 관계를 잘 이해하였다. 즉, 옷이 분해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완료된 사건이고, 그것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로서 표식을 남긴 것은 그 옷이 다 분해된 시점의 일이겠지만 그 표식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시간상의 논리이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leaving' 부분을 '남겼다' 또는 '남는다'라고 과거형 또는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이다.

## 제 4 장 고등학생 번역자료 분석

### 4.1. 고등학생 집단의 특성

고등학생들의 번역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고등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영어를 EFL 상황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학습하고 있는 집단이다. 영어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배제하더라도, 그들이 새로운 영어지문을 접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자신의 말(한국어)로 소화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많은 양의 영어지문을 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 긍정적인 답을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많은 학과 공부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들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상황에서도 같이 생활 속에서 영어지문을 필요에 의해 읽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또한 학교에서 영어지문을 접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지문을 접하게 되었을 때 교사에 의해 단어, 구문 등과 같은 지문 이해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상당부분 얻게 되며, 실제적인 지문 이해의 과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나가기 보다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풀이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의 결과를 ‘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산출물로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새로운 영어지문의 번역을 요청받았을 때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답을 하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도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실 상황에서 영어시제의 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

들의 번역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생 및 성인이 영어시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중·고등학교 영어학습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다.

고등학생의 영어 번역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그 집단의 특성을 생각할 때 성인들의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대학생 및 성인이 특정 시제와 관련된 지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들이 번역지문을 접하고 번역내용을 자신의 글로 옮기기 까지 어떠한 자세와 관점을 갖고 임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되겠다.

## 4.2. 고등학생 지문(A) 번역자료 분석

### 4.2.1. 번역지문(A)의 특성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진 번역지문은 대학생 및 성인의 것에 비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그들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그 객관적인 수준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영어지문을 능동적으로 번역하여 글로 작성한 경험이 적으므로 그들에게 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휘, 통사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두 개의 번역지문 중 먼저 지문(A)는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는 서사적인 글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글에서는 사건 및 동작의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제와 관련된 지식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4.2.2. 첫 번째 문장 번역양상

글의 첫 시작부분에서 그 시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제 인식의 정도에 하나의 커다란 지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할 경우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은 그 목표언어의 ‘의미’이며, 동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가리키는 시점보다는 그 의미자체가 더 주의를 끌게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 문장의 번역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46) Carlos dashed into the house. (Schaffer, 2003 : 8)

지문(A)는 위와 같이 과거시제로 시작하고 있다. 학생들의 번역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제 유형	관련 시제 형태소	빈도수
‘했다’형	‘-었-’	14
‘했었다’형	‘-었었-’	1

(표 16) 문장(46)의 시제 번역 양상

위와 같이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의 단순과거 시제 형태로 문장(46)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영어문장을 번역함에 있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제’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4.2.3. 영어 단순현재시제의 번역양상

(46)번 문장 다음으로 영어의 ‘단순현재시제’를 포함한 문장이 이어진다.

(47) “Mom! Dad! Marie! My robot works!” (Schaffer, 2003 : 8)

이와 같이 지문 (A)는 문장(46)의 단순과거 시제로부터 바로 현재시제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시제 유형	관련 시제 형태소	빈도수
‘(작동)해’형	현재시제 <sup>4)</sup> (∅)	12
‘(작동)한다’형	는/ㄴ <sup>5)</sup>	2
‘(작동)했어’형	‘-었-’	1

(표 17) 문장(47)의 시제 번역 양상

위 번역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영어의 단순현재시제에 관해 다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영어의 현재시제가 갖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상태동사와 함께 쓰인다. 둘째는 “습관적인 현재”로 이 경우에는 동작동사와 함께 쓰이는데, 이처럼 동작동사가 단순현재시제와 함께 쓰이면 마치 상태동사와 같이 꽤 긴 시간 동안의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상태동사와 다른 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특정 사건의 전체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작의 반복성을 특히 강조하면 현재 습관을 의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시제는 “현재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47)은 위 세 가지 용법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장(47)의 문맥적인 상황을 살펴보겠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발명한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 들어간다. 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친다. “내 로봇이 작동해요!”라고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사 “works”가 걸쳐 있는 시간의 영역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작동한다는 것을 인지한 조금 전의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카를로스의 생각에는 앞으로도 얼마간은 그 로봇이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지하게 될지도 모

4) 국어에서는 현재시제를 무표(∅), 즉 ‘-었-’이 없는 형태로 본다. (서정수, 1996)

5) 5) ‘는/ㄴ’은 보편성이 부족해 현재시제로 보지 않으나, 동작동사의 경우에는 현재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서정수, 1996)

를 미래의 어느 순간 전까지는), 지금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은 계속 이어지는 시제이다. 따라서 "works"가 나타내는 의미는 로봇이 현재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고 이 상태는 당분간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볼 때 문장(47)은 현재시제의 첫 번째 기능과 가장 가까운 듯 보이지만, "work"가 상태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태동사가 나타내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라 해도 단순현재와 함께 쓰이면 꽤 긴 시간을 언급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로봇이 조금 전부터 작동 가능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카를로스가 그것을 작동시킨다면 반복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두 번째 기능(습관적인 현재)과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세 번째 기능인 '현재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My robot is working!"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카를로스가 로봇이 작동한다고 말한 시점은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본 이후의 시점이다. 문맥상 로봇을 작동시키는 것은 카를로스이므로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혹시 카를로스가 로봇을 계속 작동중인 상태로 해 놓고 가족들에게 갔다 하더라도 그가 "works"라고 말한 의미는 그것이 지금 작동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작동 가능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문장(47)의 현재시제의 의미는 두 번째 기능인 "습관적인 현재"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work가 동작동사라고 해서 현재상태가 아니라 반복적인 동작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 동작 가능한 상태에 있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제 학생들의 번역을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 결과, 15명중 13명이 'works!'의 번역에서 '작동해', '작동해요', '작동되요', '일해요' 등과 같은 한

국어의 현재시제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본래 영어에서 의미하는 ‘동작 가능한 상태’를 무난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2명이 “작동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무표(∅)인 한국어의 현재시제에 ‘는/니’이 첨가된 형태로 역시 작동가능하다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47)의 상황(contexts)을 고려해보면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 문장(47)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를로스가 성취의 기쁨에 들떠 아버지, 어머니, 누이에게 외치는 부분이다. ‘작동한다’에서 ‘~한다’라는 표현은 주로 어떤 상태나 사실을 서술할 때 쓰인다. 때로는 대화체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문장(47)에서와 같이 다른 표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되기 쉽다.(“엄마! 아빠! 마리! 내 로봇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담화상황에서 분석해보면, ‘!’(exclamation marks)를 사용하여 “작동한다!”라고 강하게 외쳤을 경우 생생하게 대화체에서 느낌을 전달해주는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작동한다’라고 답한 2명의 학생 중 1명은 ‘!’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보여주었다.

15명 중 나머지 한 명은 “작동했어”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한국어의 단순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어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동했어”에 포함된 한국어의 시제 형태소 ‘-었-’은 앞서 분석한 바 있는 것처럼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완료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즉, 로봇이 막 작동하는 행위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화자가 로봇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로봇이 방금 막 작동했다는 완료상적인 상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완료상적인 해석은 문맥상 어색하지는 않으나 영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카를로스가 말하는 의미는 로봇이 조금 전에 막 작동을 했었다는 완료상적인 의미 뿐 만 아니라 지금도 작동 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모두 함축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작동했어’라고 번역한 학생도 ‘!’을 사

용해 ‘작동했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표현을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사실이 아닌 막 일어난 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영어 문장에서도 “ Works!” 에 ‘!’가 있어 학생들은 그 느낌을 살려 번역을 하였고 번역문에도 역시 ‘!’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번역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문장(47)의 영어 현재시제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매우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그 발화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거나 시간적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약간 발견되었다. 한 편 학생들은 문장(46)을 과거시제로 적절히 번역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47)의 현재시제적인 의미를 잘 표현함으로써 시제의 변화를 적절하게 인식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4.2.4. 영어 복문(the subordinated clauses)의 과거시제 번역양상

- 시제규칙(the sequence of tense)관련 -

번역지문 (A)는 문장 (47)이후 계속 과거시제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다.

(48) They clapped as Carlos demonstrated how the robot moved and stopped. (Schaffer, 2003 : 8)

위 문장은 두 개의 과거시제 문장이 ‘as’라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as가 이끄는 절의 내포절이 과거시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영어에서 종속절(또는 내포절)이 포함된 문장의 경우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어떠한 관계로 파악하여 번역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

6) 이 번역자는 Carlos가 아닌 가족들을 주어로 하여 의역하였다.

	<b>clapped</b>	<b>demonstrated</b>	<b>moved and stopped</b>
1	past	past	present
2	past	past	present
3	past	present (시범을 보여주자)	present
4	past	timeless (시범을 보임에 따라)	past
5	past	present (방법의 설명을 들으며) <sup>6)</sup>	present
6	past	present (증명하자)	present
※ <sup>7)</sup> 7	past	-	present
※ 8	timeless (박수를 침으로써)	past	timeless (움직이고 멈춤이)
9	past	past	present
10	past	present (시범 보이는 카를로스에게) <sup>8)</sup>	present
11	past	past	present
12	past	past	present
13	past	past	present
14	past	past	present
15	past	present (시범을 보여주는 카를로스에게)	present

※은 의미적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을 나타냄

(표 18) 문장(48)의 시제번역 양상

7) 의미적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들은 시제가 대응되는 부분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8) 이 번역자는 주절과의 연결을 위하여 as가 이끄는 절의 문장구조를 변형시켜 의역하였다. (15번도 동일함)

번역내용을 분석한 결과, ‘clapped’ 부분은 15명 중 14명이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의미적으로 다소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나 무시제의 명사구적인 표현을 썼다. 현재시제 형태를 사용한 학생은 1명도 없었다.

그런데 ‘demonstrated’ 부분에서는 현재시제가 발견되었는데 15명 중 5명이 현재시제를 사용하였다. 이 5명의 번역내용을 위 표에서 살펴보면, ‘demonstrated’ 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절의 동사이기 때문에 종결형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5, 10, 15번의 번역은 as가 이끄는 종속절과 주절의 연결을 위하여 약간 문장 형태가 변형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Demonstrated’ 부분에서도 ‘clapped’와 마찬가지로 무시제의 표현이 1개 있었다.

다음으로 ‘demonstrated’의 목적절 부분에서 나타난 ‘moved and stopped’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2명을 제외한 13명이 현재시제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2명중 1명은 과거시제를 썼고 1명은 무시제 표현을 썼다. 이처럼 현재시제가 많이 나타난 것은 ‘clapped’에서 현재시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demonstrated’부분에서 약간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문장(48)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문장의 구조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번역자들은 주절에서 종속된 절(또는 내포절)로 들어감에 따라 영어의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더 많이 번역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좀 더 문장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과거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현재시제 또는 무시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번역자들이 과거시제를 ‘clapped’, ‘demonstrated’, ‘moved and stopped’ 중 어디에 적용했는지 간에, 위 세 부분을 모두 과거시제로 번역한 학생은 없다는 것이다. 번역자별로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면, ‘move and stopped’에서 현재시제를 쓴 1명의 번역자는 두 번째인 ‘demonstrated’에서 무시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clapped’를 유일하게 과거가 아닌

무시제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학생은 대신 ‘demonstrated’를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학생은 ‘clapped’가 아닌 ‘demonstrated’를 가장 주된 동사로 번역하여 “~증명되었다”라고 문장을 끝맺었다는 것이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제까지 분석해 본 번역결과에 의하면, ‘demonstrated’를 과거시제로, ‘moved and stopped’를 현재시제로 번역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demonstrated’와 ‘moved and stopped’의 시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는 주절과 내포절이 둘 다 같은 과거시제이면 내포절은 주절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문장(48)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보자.

(48-1) 그들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고 멈추었는지 시범을 보였을 때 박수를 쳤다.

위 번역은 영어의 과거시제를 형태 그대로 국어의 과거시제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번역이다. 국어 문장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카를로스가 로봇이 움직이고 멈추었던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시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움직였고 멈추었는지’가 나타내는 시점은 카를로스가 혼자 로봇을 작동시켰던 조금 전의 상황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번역을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은 영어의 시제형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어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장(48)은 실제로 학생들이 번역한 것처럼 ‘demonstrated’와 ‘moved and stopped’가 같은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영어에서 주절과 내포절의 시제관계를 설명하는 ‘시제규칙’과 관련이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영어에서 주절(the matrix)과 내포절(the complement)이 모두 과거시제일 때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선 시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Enc, 1987)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9) Mary found out that John failed the test.

(Enç, 1987 : 634)

(50) The gardner said that the roses died.

(Enç, 1987 : 634)

위 두 문장은 주절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인데 의미적으로 볼 때 내포절이 나타내는 시간이 주절보다 더 앞서 있다. 이와 같이 내포절안의 과거시제가 주절의 과거시제의 영향을 받아 더 이전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이해석(shifted reading)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포절의 동사가 예문 (49), (50)과 같이 동작동사일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나 상태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1) John heard that Mary was pregnant. (Enç, 1987 : 635)

(52) I heard that Sally was in London. (Enç, 1987 : 635)

위 예문 (51)에서 Mary가 임신한 것은 John이 그것을 들은 것과 같은 시점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의 시점일 수도 있다. 즉, 상태동사의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전이해석’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문(52)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번역지문의 문장(48)은 ‘시제규칙’에 의한 ‘전이해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내포절인 ‘moved and stopped’가 동작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번역은 영어의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번역이다. ‘Demonstrated’와 ‘moved and stopped’를 동일한 시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시제규칙’에 의한 영어 해석에 맞는 번역은 (48-1)

에서와 같이 국어에서도 모두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내포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앞선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보인 학생은 단 1명(14번)에 불과했다. 과연 ‘시제규칙’에 의해 학생들은 문장 (48)과 같은 영어 문장의 시제이해에 무지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영어의 ‘시제규칙’이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이해석’은 동작동사의 경우에만 항상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무조건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동작동사의 ‘시제규칙’ 적용 관련 예문(49)와 문장 (48)을 의미적으로 비교해보겠다.

(48) They clapped as Carlos demonstrated how the robot moved and stopped. (Schaffer, 2003 : 8)

(49) Mary found out that John failed the test. (Enç, 1987 : 634)

(49)번 예문에서는 의미상 John이 시험에 실패한 것이 Mary가 그것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이전의 시점일 수 밖에 없다. ‘find out’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장(48)의 경우는 비록 동작동사라 해도 반드시 ‘전이해석’이 적용되어야 할 개연성이 없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전이해석’이 적용될 때에도 또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각각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카를로스는 로봇이 조금 전에 혼자 작동시켜 보았을 때 움직이고 멈춘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움직이고 멈추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둘 다 로봇이 움직이고 멈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이지만, ‘moved and stopped’가 조금 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 카를로스가 가족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로봇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달

라지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면 문장 (48)의 경우에는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적용유무에 따라 문장의 뜻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번역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영어에서 상태동사의 경우에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의미적으로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태동사는 비교적 오랜 시간 영역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동작동사는 때에 따라서 시간의 전후관계에 의해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의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48)에서 보았듯이 사건 전후의 인과관계가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동작동사라 해도 반드시 ‘전이해석’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sup>9)</sup>

그렇다면 문장(48)과 같이 ‘시제규칙’ 적용여부와 관련된 영어문장의 시제를 어떻게 지도해야할까? 우선 문장(48)의 번역결과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영어에서 ‘전이해석’의 적용여부에 크게 뜻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전이해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제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어의 가능한 번역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문장(48) 뒤에 바로 이어지는 상태동사의 ‘시제규칙’관련 문장의 번역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Carlos believed he was the luckiest kid in the world.

(Schaffer, 2003 : 8)

---

9) ‘시제규칙’을 인용한 Enç(1987)의 글에서도 그것이 다른 문법규칙들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시제규칙’은 영어에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전이해석’ 적용유무	적용하지 않음	적용함
학 생 수	14	1

(표 19) 문장 (53)의 시제번역 양상

위와 같이 ‘전이해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문장(48)에서 ‘demonstrated’와 ‘moved and stopped’의 시제관계는 이상과 같이 영어의 ‘시제규칙’과 관련해 논의되었다. 번역결과에서 ‘moved and stopped’의 현재시제 번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되었다.

이제 ‘move and stopped’만큼은 아니지만 현재시제 형태가 꽤 발견된 ‘demonstrated’의 번역양상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것은 ‘move and stopped’에서 현재시제가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 이미 번역결과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demonstrated’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절의 주된 동사로 주절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현재시제 표현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as가 이끄는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로 표현되었지만 한국어에서는 일부 종속절의 동사가 현재시제로 번역되어 주절과 연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하여 문장(48)과 같은 영어의 시제를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4.2.5. 시간의 접속사로 연결된 과거완료상 번역양상

문장(48) 이후 지문(A)는 다시 단순과거시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계속되다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완료상이 포함된 문장을 접하게 된다.

(54) After his family had gone back into the house, Carlos patted the robot on the back. (Schaffer, 2003 : 8)

이 문장은 'after'라는 시간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 접속사절과 주절 간에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after'가 이끄는 절에는 'had gone'이라는 과거완료상이 포함되어 주절 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겠다.

번역 결과 15명 중 13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의 전후관계에 맞게 'had gone'을 포함한 'after'절을 잘 해석하였다. 몇 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쳤다.”, “그의 가족이 집으로 되돌아간 후에 Carlos는 로봇의 뒤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두드렸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after'라는 시간의 접속사에 의해 가족들이 집에 들어간 일이 카를로스가 로봇의 등을 두드린 것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had gone'이 과거완료시제이므로 주절의 단순과거인 'patted'보다 더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둘 중 어느 것에 의해 문장(54)의 시간의 전후관계를 파악했는지, 아니면 둘 다를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해석을 한 것인지는 위 번역결과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의 전후관계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한 나머지 2명의 번역내용을 살펴보면, 한 학생은 “그의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라고 번역하여 'after'절을 “~한 후에”가 아닌 “~할 때”로 번역하였다. 이 학생은 주절도 'Carlos의 로봇도 안성맞춤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여 전체적으로 많이 어긋난 번역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접속사 after의 역할을 잘못 이해해서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간 일과 카를로스가 로봇의 등을 두드린 일을 같은 시간영역으로 이해했다면 이 학생은 'had gone'의 역할도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after를 잘못 인식했다 하더라도 'had gone'이 단

순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두 사건을 동일시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학생은 문장(54)를 “후에 그들의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Carlos의 등을 도닥여주었다.” 라고 번역하였다. ‘after’를 시간의 접속사가 아닌 부사로 인식한 것이다. 이 학생 또한 의미적으로 많이 벗어난 번역을 하였는데, 시간적인 면에서만 살펴보면 ‘after’절이 이끄는 부분과 주절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간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번역한 의미를 문맥으로 하여 보았을 때에는 두 사건이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after’의 기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두 문장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had gone’의 과거완료적인 기능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위와 같은 번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두 학생의 번역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시제 인식에 관한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이 두 명의 학생은 의미적으로도 많이 벗어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한 의미에 시제를 맞추기 위해 시제를 잘못 번역한 것인지, 시제의 구조를 잘못 파악하여 의미도 적절하게 번역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시제와 의미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학생은 문장의 중심적인 구조의 역할을 하는 after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간적인 의미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had gone’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때 ‘had -ed’와 같은 동사의 형태 변화 보다 ‘after’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에 더 많이 주목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fter라는 접속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문장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겪었고(반드시 그 때문에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had gone’ 부분이 patted

부분과 분명이 시제적인 형태가 다른데도 의문을 갖지 않고 생각한 바대로 해석을 계속해 나아간 것이다. 단 두 명의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번역특성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학생들이 ‘특정 시제형태소를 다른 것보다 먼저 습득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시제지도에 매우 유익한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한 연구가 있다. Brown, Villiers & Villiers는 (Bardovi-Harlig, 1999) 1973년에 영어를 제2언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시제형태소 습득 특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을 폭넓게 연구한 결과, 학습자들은 “진행상 →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irregular past) → 3인칭 단수의 현재형(third singular mark)”라는 일정한 습득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특정한 습득형태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Bailey(1987, 1989)의 설명을 인용하였다. 그것은 시제형태소의 형태적인 또는 의미적인 복잡성이 그 순서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제 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시제를 인식하는 인지적인 패턴을 설명해주어 교사들이 시제를 지도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위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제2언어의 시제를 이해할 때 “담화적 단위(pragmatic) → 어휘적 단위(lexical) → 문법적 단위(grammatical)”라는 순서로 이해한다고 논하고 있는데 담화적 단위는 담화조직자(discourse organization)와 같은 문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단어적 단위는 시간부사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문법적 단위는 동사의 변화와 같은 문법적 범주를 가리킨다. 이 패턴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여 반복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시제 이해 양상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시제적인 형태보다는 시간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시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더 수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문장 (54)의 번역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문장 (54)에서 after는 단어적인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접속사라는 기능이 문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시간부사와는 구별되지  
만, 접속사의 연결기능이 시제적인 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  
니며 after의 의미 자체가 ‘~후에’라는 단어적인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문장(54)의 ‘had gone’은 온전히 문법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생들이 ‘had gone’보다 ‘after’에 의존해  
문장(54)의 시간적 의미를 파악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김은미, 1994)와 같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  
는데 더욱더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4.3. 고등학생 지문(B) 번역자료 분석

##### 4.3.1. 번역지문 (B)의 특성

번역지문 (B)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로, 단순현재시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평이한 서술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형태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영어 지문에서 가정법을 첫 번째 문장으로 접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앞서 대학생 및 성인의 분석에서도 지문에서 첫 문장으로 제시된 가정법의 번역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번역지문(B)에서는 가정법으로 이루어진 시작부분의 번역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대학생 및 성인의 번역결과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 4.3.2. 완료상을 포함한 가정법 문장 번역양상

고등학생 번역지문 (B)의 첫 번째 문장이면서 가정법을 포함하고 있는 다음 문장의 번역을 분석하여 보겠다.

(55) If you had just eaten at a good restaurant, you might tell your friends about it. (Riley, 2002 : 21)

이 문장은 독자들에게 ‘벌들이 서로 먹이를 알려주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의 경험을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이한 점은 if가 이끄는 조건절에 ‘had ~ eaten’이라는 과거완료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문장 (55)의 가정법 과거시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가정법 안에 포함된 완료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보겠다.

번호	시제형태	If 절	시제형태	주절
1	(현재완료) =>과거완료 <sup>10)</sup>	오직 먹어왔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2	(현재완료) => 과거완료	막 식사를 끝냈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3	현재완료	먹어보았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4	현재완료	먹어보았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5	과거	식사를 했다면	과거/약한 추측	말했을지도 모른다
6	현재	먹는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7	(과거) => 현재완료	먹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8	현재	먹는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9	현재완료	단지 먹어왔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0	현재완료	식사를 해보았다면	현재/약한 추측	말할지도 모른다
11	진행형	단지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2	진행형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3	현재	식사를 한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4	진행형	먹고 있다면	현재/추측	말할 것이다
15	과거	먹었다면	과거/추측	말했을 것이다

(표 20) 문장(55)의 시제 번역양상

문장 (55)의 분석 결과 15명의 학생 중 11명이 가정법 과거시제의 기능을 인식하여 시간을 현재시간으로 번역하였다. 나머지 4명은 과거시제를 형태 그대로 과거시간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1번과 2번, 7번의 if절 번역이다. 1번 ‘먹어왔다’는 형태적으로 현재완료적인 번역이나 주절을 참고했을 때 문맥상 과거완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및 성인의 번역을 분석하면서 ‘해왔다’ 형은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완료상이지만 과거완료 상으로도 쓰인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2번의 ‘막 식사를 끝냈다면’도 현재완료적인 표현이지만, ‘끝냈다면’에 포함된 과거형태소 ‘었’이 과거완료상도 표현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7번에서는 과거시제 형태소 ‘었’이 본래 현재완료상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므로 주절의 현재시제와 함께 현재완료로서 쓰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시제 형태와 그 나타내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가정법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if절의 완료상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번의 ‘먹어왔다면’의 표현은 현재완료적인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는 습관 또는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학생은 부사 just의 의미를 ‘오직’으로 해석하여 ‘계속 좋은 식당에서만 먹어왔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유사한 표현이 9번에서 하나 더 나타났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had eaten’이라는 형태를 나름대로 완료상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한국어로 옮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위의 두 학생 외에도 완료상적인 해석을 의식한 학생들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번의

10) 1, 2, 7 번의 if절 번역은 시제 형태와 그 기능이 서로 달라, 표면적인 형태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고 실제 그 형태가 하고 있는 기능을 따로 표시하였다.

‘막 식사를 끝냈다면’은 식사를 하는 행위가 막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3번, 4번, 10번 3명의 학생은 과거의 어느 한 때 먹었던 경험이 있다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의 불명확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 의미 상 조금씩 다양한 표현을 보이며 총 6명의 학생이 if절의 완료상적인 의미를 인식하여 번역하였다. 가장 본래 영어문장의 의미에 맞는 완료상적인 표현을 한 학생은 2번 학생이다. 나머지 5명의 완료상은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문장(55)의 완료상을 그리 많이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인식한 학생들 중에서도 그 문맥의 의미에 맞게 번역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학생들이 ‘had eaten’이라는 과거완료형태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보통 가정법 과거의 if절은 동사의 과거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If절에 과거완료상이 있는 것은 가정법 과거완료의 경우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장(55)를 과거시간으로 번역한 4명의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 4명 중 2명은 if절에서 완료상을 인식한 번역을 보여주었다.(1번, 2번)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had ~ eaten’이 가정법 과거완료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완료상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문장(55)를 과거시간으로 번역한 것이다. 즉, 가정법 과거를 ‘had eaten’ 때문에 가정법 과거완료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가정법이 갖는 시제적인 특성(시제 형태가 시간의 의미 보다 하나 앞서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if절의 과거완료상 때문에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가정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 4.3.3. 대학생 및 성인 집단과 고등학생의 가정법 번역양상 비교

마지막으로 문장(55)의 번역 결과를 대학생 및 성인의 가정법 번역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대학생 대상 번역지문(B)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법 문장이 있었다.

(38-1) If you traveled back in time to the Ice Age, you would<sub>1</sub> want to take Olga Soffer with you. (Piazza, 2002 : 52)

위 문장 또한 지문의 가장 첫 문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와 비교가 가능해진다. 대학생 및 성인의 가정법 과거 인식의 비율은 14/15명이었다. 이것은 고등학생의 11/15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성인들이 고등학생보다 가정법의 인식에 더 우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if절에 완료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긴 하지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고등학생들이 이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 및 성인의 분석에서 조동사의 번역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위 (38-1)번 문장에서 would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 바 있다. 즉, would의 원래 기능인 추측(~할 것이다)의 의미로서 12명이 번역을 하였으며, 15명중 2명이 might의 기능과 유사한 약한 추측(~할지도 모른다)으로서 번역을 한 것이다. 고등학생의 번역을 분석해보면, 고등학생의 번역지문은 문장(55)에서 보여지듯이 might가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might의 번역에서도 그것의 원래 기능인 약한 추측(5명) 외에 would의 기능과 유사한 비교적 강한 추측(~할 것이다)이 10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조동사로서 would와 might를 서로 혼용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 및 성인은 would를 본래 기능으로 번역한 경우가 비율적으로 많았는데(12/15), 고등학생은 might를 본래의 기능으로 번역한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 보다 적었다.(5/15) 이러한 결과는 성인보다 고등학생들이 조동사를 본래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데, 이것을 쉽게 단정하기 보다는 더 풍부한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 5.1. 영어 주요 시제 요소별 한국어 번역양상

#### 5.1.1. 완료상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과거완료상'을 통해서 완료상의 번역양상을 논하여 보았다. 한국어에서 영어의 과거완료상과 대응된 표현은 '-었-', '-었었-', '해왔었다' 형이 있었다. 이 중 '-었었-'이 한국어 문법체계에서 영어의 과거완료상과 대응하는 시제형태소로 가장 널리 인정하는 형태이다. '-었-'은 한국어의 단순과거시제 형태소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었-'은 과거시제 뿐만 아니라 완료상(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 모두 포함)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영어의 과거완료상을 '-었-'으로 번역한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왔었다'형은 한국어에서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시제형태소의 체계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과거(기준시점) 이전의 시점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행위가 계속 이어졌음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상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또한 영어 과거완료상의 가능한 하나의 한국어 시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왔었다'의 유사한 형태인 '해왔다'형도 본 연구의 번역자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재완료상'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즉, 과거부터 현재(기준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번역자들이 영어의 과거완료상 번역에서 '해왔다'라는 한국어 완료상을 사용한 것은 해당 지문의 기준시점을 잘못 파악(여기서는 과거를 현재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시제의 이해에 있어 '기준시점'의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번역자들은 위 세 가지 형태 ('-었-', '-었었-', '해왔었다')를 각 문장별로 특징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영어완료상 문장의 번역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문장은 상태동사의 과거완료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번역자들은 상당한 수가(2/3) 한국어 시제형태소 '-었-'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어의 확실한 과거완료상 보다는 완료상과 과거시제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의 특징은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하여 상태동사가 아닌 동작동사의 과거완료상이면서, 또한 첫 번째 문장에는 없었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 비해 '-었-'이 적게 나타나고(2/5) 완료상을 확실히 나타내는 표현들 ('-있었-', '해왔었다', '해왔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동작동사의 특성과 시간의 부사구의 존재가 함께 완료상을 인식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해왔었다'와 '해왔다'하는 표현이 모두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자들이 완료상을 인식했으나 기준시점을 바로 인식하지 못해 한국어의 현재완료상을 과거완료상의 번역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시간의 부사구가 존재하나 그 차이점은 위치가 문두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작동사의 완료상인 것은 두 번째 문장과 동일하다. 이 경우에 '-었-'형은 두 번째 문장에 비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8/15) 이것은 세 번째 문장의 후속문장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문장 뒤에는 현재부사 'now'와 과거시제가 함께 쓰인 문장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문맥상 과거시제를 나타내나 'now'라는 현재 부사 때문에 상당 수의 번역자(3/5)들이 현재시제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러한 후속문장의 영향 때문에 번역자들은 그 앞의 문장인 세 번째 문장을 과거완료가 아닌 단순과거시제로 번역한 것이다. 기준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후속문장의 시제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그 이전문장의 시점도 함께 잘못 인식된 것이다. 한편 세 번째 문장에서는 '해왔다/해왔었다'형이 두 번째 문장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1/4), 이것은 위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내는 기준시점 이전부터 기준시점까지 동작이 '계속'된다는 의미 보다는 동작의 '완결성'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문장에서는 다른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예외적인 표현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세 번째 문장이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로 이동했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이처럼 시간의 부사구가 그 존재 여부 뿐 만 아니라 그 위치 또한 영어시제 번역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1.2. 가정의 조동사

영어 가정법의 번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하나는 가정법의 특별한 시제와 시간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법에 주로 쓰이는 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학생 및 성인의 경우와 고등학생의 경우가 서로 비교되었다. 먼저 첫 번째, 가정법의 시제와 시간의 관계는 대학생의 경우 거의 대다수(14/15)가 바르게 인식하였다. 즉, 가정법 과거가 포함된 문장에서 과거시제를 현재시간으로 맞게 번역한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역시 가정법 과거의 문장에서 대학생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11/15)로 가정법을 바르게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고등학생 대상 영어문장에는 가정법의 if절 안에 완료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완료상이 학생들의 가정법 이해에 혼란을 준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완료상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결론적으로 가정법 시제의 시간적 이해는 대학생 및 성인이 고등학생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도 2/3 정도가 바르게 인식하여 꽤 높게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가정법에서 조동사가 나타내는 '가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조동사 would와 might의 의미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분류하자면 would는 비교적 강한 추측, might는 약한 추측이라 할 수 있다. Would의 대표적 한국어 번역은 ‘~할 것이다’로, might는 ‘~할지도 모르겠다’로 나타났다. 한 편 대학생의 경우에는 would가 축약된 형태('d)의 번역을 다루었는데, 축약형은 본래의 형태일 때 보다 번역자들에게 조동사의 이해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정법의 조동사의 의미는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한국어의 어미 변화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발생하는 만큼,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소 벗어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 5.1.3. 단순 현재 시제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현재시제가 갖는 기능 중에서 습관적인 현재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 문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습관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특정 동작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현재 동작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었다. 이러한 영어 현재시제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해’, ‘~한다’, ‘~했어’ 등의 형태가 나타났다. 대부분이 ‘~해’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현재 시제 형태소로서 영어의 의미를 잘 전달한 적절한 번역이다. ‘~한다’는 ‘~해’와 마찬가지로 ‘작동 가능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평서문의 현재시제가 아니라 대화체에서 감탄하듯이 외치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문맥(context)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들렸다. 그러나 영어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을 ‘~한다’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영어의 느낌을 살려주는 번역도 나타났다. ‘~했어’라는 형태는 현재 작동 가능한 상태보다는 막 작동을 완료했다는 완료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현재 작동가능하고 또 당분간 앞으로도 작동가능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영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 5.1.4. 복문의 시제 관계

##### 5.1.4.1 ‘시제규칙’ 관련

영어에서 종속절 또는 내포절로 연결된 복문의 경우에 각 절 사이의 시제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특정 동사의 목적어로서 절이 내포된 내포절의 경우에는 주절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일 때 영어와 한국에서 각각 특이한 해석이 나타난다. 영어의 경우에는 ‘시제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과거시제의 영향을 받아 더 이전 시간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이해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이해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작동사의 경우에만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상태동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어문장의 경우에는 동작동사였는데 번역자들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대부분이 ‘전이해석’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타난 한국어의 시제 형태는 영어와 다르다. 다시 말해, 영어는 주절과 내포절이 모두 과거시제 형태인데 한국어는 주절은 과거시제이고 내포절은 현재시제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개의 시간적 의미관계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주절과 내포절의 관계에서 주절과 내포절이 같은 과거시간일 때 주절은 과거시제로, 내포절은 현재시제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시제규칙’을 적용하면 대다수의 한국 번역자들은 그 규칙을 알지 못한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런데 ‘시제규칙’은 영어 문법체계 내에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님을 논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 영어문장의 경우에는 동작동사라 하여도 ‘시제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개연성이 없고 적용유무에 따라 의미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음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규칙’이 적용되어야 해석이 옳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여 번역하는가에 관한 것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시제규칙’ 적용유무가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인들은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1.4.2. 시간의 접속사 관련

영어에서 동사자체의 시제 형태 뿐 만 아니라 시간의 접속사가 시제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하여 보았다. 접속사 after가 이끄는 절에 과거완료상이 있고, 주절에 과거시제가 있는 문장을 분석하였는데 번역자들은 after절이 주절보다 더 시간적으로 앞선 문장이라는 것을 대부분 잘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접속사 after의 영향 때문인지 동사의 과거완료상(had ~ed) 때문인지 원인을 분석하여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이 하나의 결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위 시간의 전후관계를 잘못 파악한 소수의 번역내용을 통해 분석해 볼 때, 시간의 전후관계를 파악하는데 동사의 시제 형태보다는 시간의 접속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지어 보았다. 또한 영어학습자의 시제 형태소 습득의 순서와 관련된 하나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담화적 단위 → 어휘적 단위 → 문법적 단위”라는 습득 형태의 연구결과는 위 논의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다. 즉 after라는 시간의 접속사를 어휘적 단위로 보고 ‘had ~ed’라는 동사의 시제 형태를 문법적 단위로 본다면, 한국인들이 동사의 시제형태보다는 시간의 접속사를 통해서 시간의 전후관계를 더 잘 인식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 5.2. 한국 교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시제 지도를 위한 제언

이제까지 번역자료를 분석한 내용들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을 한국의 영어 교실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영어시제 지도를 위해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 시간의 부사구나 후속문장 등과 같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이 없는 완료상의 번역에서 대다수의 번역자들이 한국어의 완료상 형태가 아닌 단순과거시제를 사용한 것은 영어 완료상과 한국어의 완료상을 대응시키는 명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학생들의 완료상 이해를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 한국인들은 동작동사의 완료상이나 시간의 부사구의 존재 등의 요소가 없어 완료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영어 완료상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번역에서 완료상을 명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경우, 완료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선호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시제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번역자들은 기준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과거완료를 현재완료로 잘못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글의 기준시점의 이해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 번역양상에서 시간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오면 기간이 강조되는 표현이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의 부사구의 위치가 시제 이해 및 그 한국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후속문장의 시제이해가 그 이전문장의 시제이해도에 상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문장의 시제를 지도할 때에 그 전후 문장의 시제도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일한 영어의 시제형태라 하더라도 그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의 상대적인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그 표현들을 숙지하여 폭넓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o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시제 구분이 형태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순과거시제와 과거완료상이 그러하고, 현재완료상과 과거완료상이 그러하다.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체계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이점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o 한국어 시제 형태소 '-었-'은 그 기능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이것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수한 한국어 형태소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영어시제 지도를 위한 시간일지라도 함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국학생들이 영어시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한국어도 표현하는 능력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o 가정법의 시제는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으나 그 안에 포함된 조동사의 미묘한 의미를 구분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조동사의 축약형에 대한 지도도 요구된다.

o 특정 문장의 시제 뿐 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간의 시제관계, 결국에는 글 전체의 시간의 흐름과 유기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글의 논리성에 영향을 주어 메시지의 바른 전달에 기여한다. 그런데 글의 내용에 따라서 특정 인과관계가 글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한 문장의 시제오류도 전체 문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문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시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글의 경우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o 글의 시제 이해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첫 문장부터 시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o 시제 이해에 있어서 '!'와 같은 구두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시간의 위치점 뿐 만 아니라 발화의 느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o '시제규칙'과 같은 것은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복문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인식시켜주고, 그 관련된 한국어에서의 경우도 예문을 들어 이해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o 한국인들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정 형태소를 다른 것보다 더 잘 습득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접속사, 부사, 동사의 시제형태소 등 중에서 어느 것을 통해 더 시제이해도 도움을 받는지 파악해보고 그것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o 고등학생이 성인보다 가정법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3.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영어 시제와 상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단순한 시제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을 문장, 담화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맥락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났

다.

번역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해당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영어의 시제형태소를 영어 시제체계 내에서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형태소가 갖는 기능, 즉 표현가능한 시간의 의미들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 중에서 문장이 위치한 문맥 속에서 그 문장이 갖는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찾아내었다. 다음은 한국어 번역자료에서 영어문장과 대응하는 부분에서 번역자들이 보여준 해석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빈도를 표시하였다. 흥미롭게도 한국어 해석 유형 중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하는 영어의 시제의미와 유사한 해석이 존재하였다. 가장 유사한 해석의 빈도수가 가장 높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번역 표현들을 분석하면서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인지, 그리고 틀렸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과정은 이 부분이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일대일 대조에서 틀린 것처럼 보였던 번역들 중에서 한국어의 맥락 속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존재했다. 즉 형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두 언어 체계 내에서 이해했을 때에는 각각 가능한 표현으로 분석된 것이다.

하나의 영어문장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어의 문장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영어표현을 찾았다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시제체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라는 것의 특성 자체가 이러한 대조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시제는 언어의 요소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 시제의 개념들을 인위적으로 분류해서 다루지 않고, 영어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하고 그것을 모국어인 한국어로 표현하게 한 것은 시제 이해의 정도를 통합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고 본다. 한 편 본 연구에

서는 번역자들의 번역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시제의 개념들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론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깊이 있는 분석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이론적인 설명을 토대로 한 분석을 하려고 최대한 시도는 하였지만 번역문장들과 연관된 많은 시제의 개념을 다루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깊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제의 개념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번역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결과들이 시제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번역자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상당히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시제이론에 근거를 둔 표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국어 시제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어 내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시간 표현이 가능해진 면도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훌륭하고 매끄러운 번역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상당한 인식도를 나타내기도 하여,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들의 시제와 관련된 언어능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시제도 하나의 문법이다. 현대의 문법교수가 ‘명시적’이기보다는 ‘암시적’인 것을 선호하기는 하나, 적어도 시제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시제형태소의 설명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영어 시제체계 하나만을 따로 다루거나, 한국어와 함께 다룬다고 하여도 마치 수식과 같이 일대일 대응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간적 의미의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정해진 시제 분류의 틀 속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그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가능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교사에게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호 (1981). 시제형태소 ‘았’, ‘겠’의 의미. *한국언어문학* 20: 11-20
- 김은미 (1994).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시제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 김지영 (1994). 영어학습자의 시제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서정수 (1996). *현대 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117-178
- 심정하 (2004).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시제체계 습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유정석 (1999). 영어시제 표현의 오류에 대한 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윤영로 (1986).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미영 (2000). 영어 시제의 이해와 사용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미희 (1994). 영어 시제 학습에 나타난 오류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의성 (2000). 영어시제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이재성 (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24-87, 233-277

- 정경숙 (1987). 영어와 우리말의 시제비교. 부산대학교 문학 석사학위:  
38-39
- Bardovi-Harlig, Kathleen (1999). From Morpheme Studies to Temporal  
Semantics -Tense-Aspect Research in SLA-. *SSLA* 21: 342-343.
- Riley, Gail (200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 Grade 3-4.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21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Harlow: London.
- Piazza, Linda (200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 Grade 7-8.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52
- Shelley, Mary (2000). *Frankenstein*. OXFORD university press: 10
- Enç, Mürvet (1987). Anchoring Conditions for Tense. *Linguistic  
Inquiry* 18. 4: 633-637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75-237
- Schaffer, Frank (2003). *Spectrum Reading*. Grade 3. McGraw-Hill  
Companies: 8

# ABSTRACT

## Korean Translation of English Tense and Aspect – Questions and Suggestions –

Jung Yu Ji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ense and aspect have been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English education. Deep understanding of target language's temporal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in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tried to evaluate learners' degree of understanding of English tense and aspect. They dealt with learning English tense and aspect from various aspects, yet mostly in the decontextualized settings.

This thesis aims to evaluate learners' degree of understanding of tense and aspect within the overall contexts. The means of evaluation is learners' translation products of English texts into Korean. This method

is also used to study learners' expressions of English tense and aspect in Korean contexts.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concept of tense and aspect, and general theories on English and Korean temporal systems.

The third and fourth chapters deal with the data from translation products of Korean adults and high school students. Several elements of tense and aspect are analyzed and discussed, such as the past perfective, the simple present tense and the subjunctive mood regarding tense. To explain the results of data, both English and Korean temporal systems are referred to. The main purpose is to see the translators' consciousness of English tense and aspect and characteristics of temporal expressions in their products. It turned out that there are more than one translation about one English temporal expression. Some of them show errors, and some of them are reasonable in terms of Korean temporal system even though they do not correspond with English temporal system.

The last chapter deals with som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are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English teaching in Korean schools.

Tense and aspect are very complicated parts in language learning. Therefore, they need to be dealt with in an integrative approach, that is, within the overall contexts. Teachers should give students the opportunities to transfer what they understood about English tense and aspect into their own writing, and try to evaluate the expressions in terms of overall contexts and individual writing pattern.

## 부 록

o 대학생 번역지문(A) 및 번역사례

< 대학생 번역지문 A >

I had wanted to make a beautiful man, but the face of the creature was horrible. Its skin was thin and yellow, and its eyes were as yellow as its skin. Its long black hair and white teeth were almost beautiful, but the rest of the face was very ugly.

Its legs and arms were the right shape, but they were huge. I had to use big pieces because it was too difficult to join small pieces together. My creature was two and a half meters tall.

For a year I had worked to make this creature, but now it looked terrible and frightening. I almost decided to destroy it. But I could not. I had to know if I could put life into it.

I joined the body to the wires from my machine. More wires joined the machine to the mast. I was sure that my machine could use electricity from lightning to give life to the body. I watched and waited. Two days later I saw dark clouds in the sky, and I knew that a storm was coming. At about one o'clock in the morning the lightning came. My mast began to do its work immediately, and the electricity from the lightning travelled down the mast to my machine. Would the machine work?

At first nothing happened. But after a few minutes I saw the creature's body begin to move. Slowly, terribly, the body came alive. Its arms and legs began to move, and slowly it sat up.

The dead body had been an ugly thing, but alive, it was much more horrible. Suddenly I wanted to escape from it. I ran out of the laboratory, and locked the door. I was filled with fear at what I had done.

(Shelley, Mary (2000). Frankenstein. OXFORD university press: 10)

< 대학생 번역사례 A >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이 피조물은 매우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피부는 수척하고 누런색이었고, 눈도 피부처럼 탁했다. 검은색 긴 머리와 하얀 치아는 그나마 아름다웠지만, 그 나머지는 너무나도 흉했다.

다리와 팔은 정상적인 모양이었으나, 지나치게 컸다. 작은 조각들을 서로 붙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큰 조각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피조물은 2m 50cm의 거구였다.

1년 동안 나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내가 만든 피조물은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기로 거의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의 전선들을 피조물의 몸에 연결시켰다. 전선으로 기계와 기둥도 연결했다. 기계가 번개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해 내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지켜보면서 기다렸다. 이틀 뒤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곧 폭풍이 닥칠 것을 알았다. 새벽 1시쯤 번개가 쳤다. 내 기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번개에서 발생한 전기가 기둥을 타고 기계로 흘러들었다. 기계가 과연 작동할까?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몇 분 뒤에 피조물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천천히, 무시무시하게, 몸이 살아났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피조물이 천천히 일어섰다.

죽어있을 때도 추했지만, 몸이 살아나자 훨씬 더 끔찍했다. 갑자기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실험실에서 뛰쳐나와 문을 잠겼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공포에 질렸다.

o 대학생 번역지문(B) 및 번역사례

< 대학생 번역지문 B >

### **The Old Days Weren't Like You Thought**

If you traveled back in time to the Ice Age, you would want to take Olga Soffer with you. She could tell you what to wear.

You'd wear furs and animal skins, stitched together with sinew, right? Not necessarily, Soffer would say. A former immigrant from Yugoslavia, Soffer focused her archeological research on Eastern Europe. While she and an associate were studying pottery statues found there, they discovered evidence that well-dressed prehistoric people might have worn clothes much like our fine cottons and lines.

Fine marks crisscrossed the pottery. Soffer examined those marks. Before studying prehistoric art and life, she had worked for ten years in the fashion industry. She recognized those marks as evidence of woven threads. Soffer and her colleague decided that the statues had once been dressed in woven clothing. Through the ages, the clothing had disintegrated, leaving the marks as the only evidence of its existence.

Women would have woven that clothing. Until recently, anthropologists focused on the man in prehistoric societies. Their stone tools sometimes survived the passage of time. The plant fibers that women wove into clothing did not survive. Soffer's research forced anthropologists to rethink women's contributions to their prehistoric society.

(Piazza, Linda (200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 Grade 7-8.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52)

< 대학생 번역사례 B >

**옛 시절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당신이 빙하기로 과거여행을 떠난다면, 올가 소퍼를 데려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뭘 입을지를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마도 동물 힘줄로 꿰맨 모피와 가죽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소퍼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초기 유고슬라비아 이주민인 소퍼는 동유럽에 고고학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녀와 학회는 거기서 발견된 도자기 상을 연구하는 동안, 옷을 잘 갖춰입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의 좋은 면과 안감 같은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멋진 흔적이 도기에 십자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다. 소퍼는 그 표시를 조사했다. 선사시대 예술과 생활을 연구하기 전에 그녀는 패션산업 분야에서 10여년을 일했다. 그녀는 그 표시가 실로 천을 짠 증거라고 보았다. 소퍼와 동료들은 조각상이 예전에는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풍화되었고, 존재의 유일한 증거로서 그 흔적을 남긴 것이다.

여자들은 실로 뜨개질을 해서 그 옷을 만들었을 것이다. 최근까지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 사회의 남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자들의 돌로 만든 무기는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때때로 살아남지만 여자들이 옷을 짓던 식물섬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소퍼의 연구로 인해 인류학자들은 선사시대 사회에서의 여성 기여도를 재고하게 되었다.

o 고등학생 번역지문(A) 및 번역사례

< 고등학생 번역지문 A >

Carlos dashed into the house. "Mom! Dad! Marie! My robot works!"

Everyone hurried outside. They clapped as Carlos demonstrated how the robot moved and stopped. Carlos believed he was the luckiest kid in the whole world.

After his family had gone back into the house, Carlos patted the robot on the back. "You're good at taking orders. Maybe you can help me with my chores."

Carlos went inside and came back with two wastebaskets. He took one of them to the trash can and took off the can's lid. "Empty," Carlos said, pouring the trash into the can. He put the lid back on.

"Now it's your turn," Carlos said. He gave the other wastebasket to the robot. "Empty," he commanded. The robot turned the wastebasket over. All the trash landed on the grass. Carlos picked up the trash and stuffed it back into the wastebasket.

"Let's try again," Carlos said. He put the wastebasket into the robot's hands and turned it toward the trash can. "Move," he ordered. The robot rolled to the trash can. It stopped when Carlos told it to. "Empty," Carlos said. The robot turned the wastebasket over. The trash landed on the lid of the trash can.

"Oh, no, I forgot about the lid," Carlos moaned. "We've both got a lot to learn, robot."

(Schaffer, Frank (2003). Spectrum Reading. Grade 3. McGraw-Hill Companies: 8)

< 고등학생 번역사례 A >

카를로스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아빠! 마리에! 내 로봇이 작동해!” 모두들 밖으로 서둘렀다. 그들은 카를로스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멈추는지 시범을 보였을 때 박수를 쳤다. 카를로스는 그가 전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아이라고 믿었다. 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카를로스는 로봇의 등을 쳤다.

“너는 주문을 잘 들어주었어. 아마도 너는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거야.” 카를로스는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들 중 하나를 쓰레기 통으로 꺼내어 통의 뚜껑을 떼어냈다.

“비워” 카를로스가 쓰레기들을 통으로 쏟아부으면서 말했다. 그는 뚜껑을 다시 덮었다.

“이제 네 차례야” 카를로스가 말했다. 그는 다른 쓰레기통을 로봇에게 주었다.

“비워” 그는 명령했다. 로봇은 쓰레기통을 뒤집었다. 모든 쓰레기가 풀밭에 떨어졌다. 카를로스는 쓰레기를 집어서 다시 쓰레기통 안으로 담았다.

“다시해보자” 카를로스가 말했다. 그는 쓰레기를 로봇의 손에 놓은 다음 쓰레기통을 향해 돌려놓았다.

“옹겨” 그가 명령했다. 로봇은 쓰레기 통으로 굴러갔다. 카를로스가 로봇에게 말했을 때 그것은 멈췄다.

“비워” 카를로스가 말했다. 로봇은 쓰레기통을 뒤집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 뚜껑 위에 떨어졌다.

“오, 안돼. 내가 뚜껑에 대해 잊었구나.” 카를로스가 슬퍼했다.

“우리 둘다 배울 것을 많이 얻었구나, 로봇아”

o 고등학생 번역지문(B) 및 번역사례

< 고등학생 번역지문 B >

### **Dancing the Day Away**

If you had just eaten at a good restaurant, you might tell your friends about it. You might tell your friends what the food tasted like and where they could find the restaurant. Bess cannot communicate the way you do, of course.

Instead, a bee brings back a sample of nectar. The other bees can taste the nectar. But how do the other bees find out where the nectar i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returning bee does dances and buzzes to tell this information. The dances tell how far the flower is from the hive and in what direction other bees need to travel to find the flower. The dances even tell how good the nectar is, and how much nectar bees will find there.

The "round" dance tells bees that nectar is near the hive. The bee dances around in a circle.

The "Waggle" dance tells bees that nectar is farther away. The dancing bee dances in two loops and then flies down the middle. Other bees can tell about distance based on how fast the dancing bee loops and how long it buzzes.

(Riley, Gail (2002). Nonfiction Reading Comprehension. Grade 3-4. McGraw-Hill Children's Publishing: 21)

< 고등학생 번역사례 B >

만약 당신이 좋은 음식점에서 오직 먹어왔다면, 당신은 당신의 친구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음식이 어떤 맛이 나는지, 어디에서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는지 친구에게 말했을 것이다. 벌들은 물론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대신에, 벌은 과즙의 샘플을 가지고 온다. 다른 벌들이 과즙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벌들은 과즙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까? 많은 전문가들은 벌이 이 정보를 말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벌이 춤을 추고 뿜뿜거리한다고 믿는다. 그 춤은 꽃이 벌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벌들이 꽃을 찾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방향을 말해준다.

원을 그리는 춤은 과즙이 벌통 가까이 있다는 것을 벌들에게 말해준다. 벌은 원 주위에서 춤을 춘다.

흔드는 춤은 과즙이 더 멀리에 있다는 것을 벌들에게 말해준다. 그 춤추는 벌은 두 개의 고리모양으로 춤을 춘 다음 중앙으로 날아내려온다. 다른 벌들은 춤추는 벌이 얼마나 빨리 고리를 만드는지, 얼마나 오래 뿜뿜거리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